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윌리암 맥도날드 자음
조성 훈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The Forgotten Command:
BE HOLY

by
WILLIAM MACDONALD

JOHN RITCHIE LTD.
40 BEANSBURN, KILMARNOCK, SCOTLAN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1. 그리스도를 맑음	7
2. 현대의 외식	10
3.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17
4. 거룩에 대한 동기	23
5. 4가지의 성결	29
6. 하나님의 전신갑주	36
7.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50
8.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53
9.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57
10. 사실을 바로 이해함	68
11. 승리의 길 : 성령충만을 받으라	80
12. 두 왕국(나라)	100
13. 죄에 대한 해부와 회개	112
14. 도덕적 청결	122
15. 동성 연애	133
16. 내면의 재판관 : 양심	139

17. 사람의 생각	142
18. 둑 상	154
19. 혀를 길들임	163
20. 우리의 협담을 용서하소서	171
21. 기질 측정	176
22. 무엇을 입을까?	180
23. 진리를 말함	184
24. 도덕성에 대한 딜레마	188
25. 주여, 나를 부서지게 하소서	192
26. 물질남용을 피하라	199
27. 도박	208
28. 산아 제한	214
29. 정 치	219
30. 자기 집착	224
31. 거룩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231

서 문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거듭난 후 매우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매우 좋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후로는 믿음생활에서 떨어져 간다. 물론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난 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에서 떨어져 나간다. 단 한번의 범죄로 그 사람의 남은 생을 망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느끼며 더이상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며 그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날개가 부러진 새라 할지라도 다시 하늘 높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은 떼가 수년 동안 먹은 자리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

신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삶을 실폐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또한 그러한 경험 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다. 경험이란 아주 비싼 수업료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배운다면 굳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죄로 인한 모든 마음 아픈 일들을 피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굳이 수치와 아픔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1

그리스도를 닮음

인격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일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칭찬이요 영광이다.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은 없다. 헨리 드럼몬드(Henry Drummond)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다른 모든 인간의 야망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못한 성취는 혓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 닮기 원하네.
 이 땅에서 하늘까지
 나의 모든 생애 동안
 주님 닮기 원하네.” (작자 미상)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특출한 말씀의 은사를 갖는 것도 만족스러울 것이

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큰 은사보다 나으며 이것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팽파리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유능한 말씀의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가정에서는 불평꾼일 수 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쳐 주시는 것이지만 자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러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개인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사역은 오늘날 아주 널리 알려지고 보급되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양 강매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위해서는 숨가쁘게 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흐리고, 오히려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많이 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합당한 질서와 우선순위를 주셨다. 우리의 임무는 먼저 그분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분의 책임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그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주 좋아해서 하늘나라 전체를 그 아들을 닮은 자들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

캐롤 메이홀(Carole Mayhall)은 주님을 닮아 가는 것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예화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첫째
는 살빼기 훈련반에 들어간 몸이 지나치게 살찐 한 여인에 대
한 이야기이다.

“훈련 교사가 먼저 한 것은 거울에다 그녀가 되고 싶은 스타
일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
의 모습은 거울에 그린 날씬한 몸매를 차고 넘쳤다. 그후 수 주
동안을 그녀는 운동을 하며 음식을 조절하였다. 매주 그녀는
거울 앞에 섰고 그 때마다 몸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엉덩이
가 그려놓은 몸매에 비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열
심히 운동을 하며 엄격하게 음식 조절을 하였다. 결국 어느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거울 앞
에 섰을 때 그곳에 그런 모습에 꼭 들어맞았다.”

두 번째 예는 화강암 덩어리로 사자의 상을 새긴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떻게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
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주 쉬웠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사
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모조리 쪼아 낸 것뿐입니다”라고 말
했다.

다음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들을 쪼아 내시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인
다. 이를 읽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예수,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 보이게 하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당신의 소유라는 것만이 알려지게 하소서.”

2 현대의 외식

모 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 그들은 구세주에 대한 역할의 모델로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참으로 엄중한 책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몸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택한 하나의 도구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그들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과연 그들은 내께서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히 11:16). 나의 이름을 넣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찰스 스윈돌(Charles Swindoll)은 “좋든지 싫든지 세상은 마치 갈매기가 얇은 물가의 새우를 찾는 것처럼 우리들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와 그 삶에 대해 전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본 우리의 삶이라는 체를 통하여 걸러져 나간다”라고 말했다.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한가지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친구들의 집에서 상함을 받았다.

제임스 스팅크(James Spink)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해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는 세상이 때로 그들의 말과 삶이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말한 대로 옳다면 마땅히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치에 맞는 변론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도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성경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이 나의 회의론적 동료들의 강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예수께서 잘못 제시되고 있는 예는 아주 많다. 최근에 나는 범퍼에 두 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트럭을 본 적이 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었고 오른쪽

에 있는 다른 하나는 더 인상적인 이태리식 글체로 “내 차를 건드리면 너의 얼굴을 부셔놓겠다”라고 쓴 것이었다. 아마도 차 주인은 두 스티커의 의미가 크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사업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조지 던컨(Jeorge Duncan)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한 실업가가 전날 밤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채용한 여직원이 이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는 그 여직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다른 여직원에게 ‘맞아요. 주일 밤에는 예수님께 나가고 월요일 아침에는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말했다.”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동업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교회에 나갑니까?” 그는 “교회 이야기는 껴내지도 말아요.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업이란 말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쌓기 위해 20년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그 쌓은 간증을 단 몇 초 동안에 헐어버리고 만 것이다.

유명한 배우들이 “거듭났다”고 말할 때 이는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확실히 구별되지 않고, 좋지 않은 영화에 계속 출연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증거가 없을 때 그 소식 또한 전국에 퍼진다.

또는 “그리스도인 음악가들”이 세상 것을 흉내내는 울동이

나 상징적인 몸짓, 의심스러운 노래 가사와 음악을 하는데 이것이 참 기독교인가,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모방의 한 풍자인가!

큰 복음 집회에서 한 쟁 단원이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다. 이 소식은 곧 불처럼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남몰래 그의 옛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한 사람이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옛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축구 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카우보이도 있고 그리스도인 정치가들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 쟁은 있으면 안되나요?”라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기독교를 끼버렸다.

이세벨처럼 보석으로 꾸미고 비싼 머리 장식을 한 유명한 크리스챤 TV 명사들도 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가난했던 분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같은 휘황찬란한 분으로 세상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약 탈

휘황찬란한 궁전에 살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주일날 이면 바구니를 돌리며 돈을 구걸하는 라디오나 TV 설교자들도 잊지 말라. 영리한 기자들이 거짓 게임의 진상을 곧 밝혀 낼 것이며, 기독교는 또다른 치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 유명한 TV 목사는 풀장 주위에 테이블이 있는 넓은 정원에다 방이 12개나 있는 베르사이유 궁전 같은 웅장한 맨션에서 살고 있으며, 또 휴가를 위해서 로스엔젤레스에 50만 불짜리 맨션을 사고—그의 아내는 이것을 휴가를 위한 아주 조

그만 장소라고 말한다—벤츠와 재규어(영국제 고급 스포츠 카) 군단에다 롤스로이스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상의 지도급 위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그 비서와 함께 놀아나고 그 아내와는 이별했다는 이야기들이 방송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그 남편을 떠나고 있는지 모른다. 기독교계에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때로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의 세속적인 언어와 의심스러운 태협, 그리고 흐릿한 교제들로 인하여 모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린 경우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구원받았노라고 말한 유명한 죄수들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죄수들의 변화에 대해 의문을 갖는 판사들도 신자들의 강한 변호로 인하여 죄수들을 석방한다. 어떤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 그들을 혜여다 단에 세우기도 한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범죄하여 감옥으로 들어간다.

시험을 훔쳐보는 그리스도인 학생들과, 그 이웃과 말다툼하는 주부들, 벼룩없고 성미 급한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못 나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의 됨됨이가 너무 큰소리로 외치므로 네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풍행 때문에 존 맥아더도 “세상에는 가짜 대리인(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군인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알렉산더 대왕 앞에 불려 오게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군인은 풀죽은 어조로 “알렉산더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뭐? 알렉산더라고? 그렇다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에 맞는 삶을 살든지 하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며지고 있는 우리도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H. G. 보스취).

스텐리 존스(Stanley Jones)는 간디(Mahatma Gandhi)와의 대화에서 “저는 기독교가 인도에 보편화되어서 더이상 외국 사람들과 외국 관리들에 의한 외국 종교가 아닌 인도 국민들의 삶이 되어 인도를 구원하고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같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간디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더니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좀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고 권하며, 둘째로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무너뜨리지 말고 이를 실행함으로 세우고, 셋째로 사랑은 기독교의 혼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라고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간디가 한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브라이언 굳윈(Brian Goodwin)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은 한 중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생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 선생님이 그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그를 만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호텔에서 선교사를 만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걸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가?’라고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수년 동안의 관심과 돌봄으로 그에게 쌓았던 선교사의 간증은 그 굴욕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중국 청년의 이름은 마오 체통(Mao Tsetung)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참 슬픈 소식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3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크게 잘못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세상에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 있다.

나는 나와 가까운 친구였던 한 학생을 생각한다. 그는 흑생종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침실은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천국이었다. 정기적으로 그를 돌보았던 한 간호사는 그에 대하여 “롭(Rob)은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케 해줍니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차프만(Robert C. Chapman)은 겸손하게 다음과 같은 큰 목표를 그 앞에 두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 나중에 다비(J. N. Darby)는 그에 대하여 “그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했다.

윌리암 아르낫(William Arnot)에 대하여 그 친구는 “그의 가

르침도 좋았고 그가 쓴 글도 참 좋았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했다.

힌두교 교도였으나 예수님을 믿은 사두 씽(Sadhu Singh)이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주러 나온 여종은 홍분하여 그 안주인에게 달려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가정에서는 그가 어린이들과 함께 마루에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은 큰 감명을 받아 잠잘 때에 그 어머니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 방에 와서 잘 자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에 대하여 “이는 그를 만난 모든 자들의 그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모습은 온유함과 영육간에 나타나는 그의 권위와 좋은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작은 예수

로버트 머레이 맥체니(Robert Murray Mccheyne)의 전기를 보면 “맥체니의 거룩은 심지어 그가 말하기 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이 곧 그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었다. 북스코틀랜드에서 그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된 한 사역자가 있었다. 그는 그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맥체니가 방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아!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라고 말했다”고 쓰여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스트워트(Stewart)는 “맥체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수 시간을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목욕을 한 다음 집집을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향기를 풍기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온다. 그가 그의 교

구의 거리를 걸을 때에—영국의 다른 어떤 거리를 걸을 때에도—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라고 말했다.

샬리(Sally Magnusson)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이자 선교사인 에릭 리델(Eric Liddell)에 대하여 그가 일본 군의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이 주님 같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계속 그에게로 모이게 하는 것은 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습니다. 싱가폴의 중국인 포로수용소에서처럼 에릭이 이곳에서 그리는 모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창녀들과 멸시받는 사업가들에게 친절했으며, 약한 자들을 위해 석탄을 나르고, 젊은 자들을 가르치며, 금시계를 팔아 어려운 자를 돋고, 자신의 침대 시트를 찢어 하키 스틱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에릭이었습니다.”

리챠드 힐러리(Richard Hillary)는 그의 책 “마지막 원수”(The last enemy)에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피터 피즈(Peter Pease)에 의해 도전을 받았으며 또한 약이 올랐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의 목표는 그를 조용히 따로 만나 무자비하게 그의 믿음을 찢어 놓는 것이었다. 그의 기회는 몬트로스에서 에딘브러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의 끄이 앞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종교는 가짜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같은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조금 유용한 하나의 부속물일 뿐 그 이상은 아니오”라고 말했다. 피터는 입을 열어 부드럽게 몇 마디 하

고는 그 공격자의 흥수같이 퍼붓는 비난에 잠잠히 그 입을 다물고 있었다. 헐러리는 그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사실, 즉 피터의 인격 때문에 그 자신이 그 공격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인격은 그의 종교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뭉쳐 있었으며 논리와 행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J. H. 죄净资产은 “사람들은 당신을 다양한 논리로 공격할 것이다. 지적인 논쟁으로 당신은 고통을 당하며 또한 쉽게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온전케 되어 그들 앞에 선 사람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썼다.

R. W. 디한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선교지에 새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며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의 설교로 인하여 사람들이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약간 흥분하여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한 마을 사람이 곧바로 대답했다. ‘예, 압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자주 오는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기된 얼굴로 그들의 건강을 돌아보기 위하여 그곳에 자주 오는 한 의사인 선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닮아서 그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있어 아주 좋은 본이었다.”

헨리 스탠리(sir Henry M. Stanley)경은 “저는 런던에서 가장 고약한 불신자로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기자로써 전쟁과 큰 집회, 그리고 정치적 모임이나 다른 저에게 감상적인 것과는 인연이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내게도 반응이 왔습니다. 저는 속세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이라는 한 노인을 만난 후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있을까? 그를 이곳에 있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 그를 만난지 4개월 후에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죽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이상한 노인의 말을 청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의 동정과 온유함, 열심, 정직, 그리고 은밀하게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내게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R. C. 스프로울은 빌리 그래함이 제랄드 포드(Gerald Ford) 대통령과 니클라우스(Nicklaus), 그리고 다른 프로 골퍼들과 골프를 쳤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중에 한 골퍼가 그 친구에게 빌리 그래함의 종교가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그의 골프공 통에다 분풀이를 했다. 그의 친구가 따라오며 “왜, 빌리가 골프를 칠 때에 너에게 거칠게 굴었니?”라고 물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은 망설이며 “아니야. 그는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라고 말했다. 스프로울의 설명은 이렇다. 놀랍게도 빌리 그래함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게임이 끝났을 때 그 골퍼는 마치 빌리 그래함이 그의 입에다 종교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어떤 일이 있

었을까? 이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그 골퍼는 그의 앞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다.

하루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동료 선교사 실라스 폭스(Silas Fox)를 초청하였는데 이웃에 있는 한 힌두교도가 찾아와 잠시 방문하고 돌아갔다. 그 힌두교도는 돌아와 흥분된 어조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많은 신을 믿는 그녀가 실라스 폭스의 얼굴에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거룩은 노력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 신자는 마땅히 거룩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이루도록 그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거룩은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을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4 거룩에 대한 동기

왜 신자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왜 신자는 “주님을 더 닮기 원하네”라고 노래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더 닮기 원하는 열망으로 몸부림치는가?
첫째로 그것은 그가 구원받을 때 그 안에 주어진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에 대한 새로운 미움과 성경에 대한 사랑을 받는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서 성별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신다. 개인적인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바로 새로운 성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쫓고 세상과 육,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데에는 더 강한 이유들이 있다. 심각한 죄의 결과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 제자를 선생과 같이 본다. 만일 그 제자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선생을 비난한다. 제자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그 선생(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1987년, 한 TV 목사가 섹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을 때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것은 왜 종교가 나쁘고 추하며, 더러운 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끝없는 훼방을 받게 했다(삼하 12:14) 빅터 잭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죽은 4가지 것에 대해 말했다.

- 먼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웃음이 사라졌다—“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기뻐하지 않으심)”(삼하 11:27).
- 다윗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다—“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 다윗의 보좌의 안전성이 무너졌다—“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 세상에서 그의 간증이 소멸되었다—“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거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불하게 한 값에 대한 기억이다(벧전 2:24)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죄에 대해 관용하거나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한 사랑을 두고 우리의 옛 삶으로 돌아가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벧전 1:15,16; 히 12:14).

죄는 다른 사람들, 즉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넘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복음이 사람의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돌아선다. 성도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삶에 있는 죄로 인하여 환멸을 느끼기 쉽고 상처를 입기 쉽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 대적한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묵과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뜻뜻하지 못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서 돌아섰다. 모하메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일신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을 인하여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브라이언 굳윈(Brian Goodwin)은 “조금만 더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역사에 큰 변화, 즉 오늘날 모슬렘계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실망하며 또한 힘을 잃는다. 때로 젊은 그리스도인은 그를 주께 인도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배신감

을 느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어 주고 밀어주는 친구들을 생각해 자주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거룩한 삶은 영과 혼과 육에 있어 최상의 삶이다. 이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건강에 매우 좋다. 거룩한 삶은 또한 우리를 후회나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에서 구원해 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요일 1:4; 사 16:11).

한 어린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났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한 동시에 행복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은 거룩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지속적인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후 7:1).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딤전 4:8)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영원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이다. 앞으로 머지 않아 아마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지금부터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죄는 입을 막는다

죄는 입을 막지만 거룩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자유를

부여한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또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모든 죄책감과, 자신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다. 그는 성령의 자유를 즐기지 못한다.

거룩은 기도에 확신을 갖게 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듣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1,22). 반대로 생각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다(시 66:18). 죄는 기도의 사슬을 끊는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다.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자는 늘 위험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평생 그의 삶에 그늘과 구름이 드리우게 할 시험에 빠지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거룩에 대한 동기인데 이는 강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너무나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는 떼가 올 것인데 이는 견전한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의 구세주를 찾고자 하는 욕망의 이유이다. 이제 우리의 성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점검해 볼 때이다. 그리고 성결은 거룩에 대한 또 다른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5

4가지의 성결

죠 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성령에 의해 그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였다.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되었다. 그가 자라면서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접촉하게 되었다. 어느날 어떤 낯선 사람이 그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었다. 그는 또한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 동료가 그에게 전도를 했다. TV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정은 곧 변화를 맞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그 자신의 구원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결국 죠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연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거룩이며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더 이상 사단이 왕으로 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성별된 그리스도의 지체였다.

죠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었지만 옛날 같지는 않았다.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는 더이상 그 자신의 모든 의지가 동의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했으며 마음 아파했다. 그의 옛 습관들은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의심할 것 없이 그가 거룩에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했다.

죠는 지난 화요일에 죽었다. 그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기적처럼 변화되었다. 죠는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주님처럼 되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죄와 불결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성결에 대한 바른 의미

죠의 삶에서 예로 든 4가지 요소의 성결이 신약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성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결”의 일반적인 의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자. 성결은 거룩에 대한 또다른 말이다. 두 단어 모두 같은 어원에서 온 것으로서 의미도 같다.

“거룩하다” 또는 “성별하다”는 “따로 분리해 둘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결이나 거룩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이다.

성결을 더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실수이다. 사실인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요 17:17)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벧전 3:15). 주님은 그 자신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우리도 그분의 완벽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따로 성별하실 수 있으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하나님과 주(主)로 성별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 성결과 거룩은 사람이나 물건에 사용되었다.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뛰어난 특성과 행위로 인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계 11:2; 요 10:36; 고전 6:19). 시내 산은 율법을 주신 장소로써 따로 분리함으로 거룩한 곳이 되었다(출 19:23).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케 하셨다(창 2:3). 이는 일하는 날들로부터 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날이었다. 사람이나 짐승의 첫태생은 하나님께 성별되었으며(출 13:2) 그분께 속한 것으로 따로 성별했다.

언약궤와 그에 속한 모든 기구들도 성별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 두었다는 것이다(출 19:23).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우상숭배) 행하기 위하여 그 자신들을 성별하였다(사 66:17). 물론 그들은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신들을 더 거룩하게 하지는 못했다.

불신자들도 성별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고전 7:14)가 그렇다. 이것은 그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특권을 갖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즉 불신 아내를 둔 자에 비해 더 특권을 가진 자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배우자의 믿음과 기도의 영향은 큰 유익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성별”이라는 말이 다양한 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성별에 대해 알아보기

로 하자. 그 4가지 성별은 다음과 같다.

- 구원을 위한 성별
- 신분적인 성별
- 실질적 또는 점진적인 성별
- 완전한 성별

구원을 위한 성별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별되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3단계를 말하였다(살후 2:13).

-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
-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 그들이 진리를 믿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2장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였 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심
- 성령에 의하여 거룩케 됨
-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 두 경우 성별은 그들의 회심 전에 온다. 성령께서 그 사람 을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성별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그 사람의 순종 을 보증하게 된다.

신분적인 성별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성별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며 그분 자신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2).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거룩이다(고전 1:30).

모든 참 신자들은 성도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성별된 자들이며, 또한 동시에 육신(세속적인)에 속한 자일 수도 있다(고전 1:1,2, 3:1,3). 그는 신분적으로 성별된 자이지만 그의 행동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다. 성결케 된 자들에게 그후 거룩하게 되라고 권하고 있다(벧전 1:2,15,16).

사도행전 20:32에 있는 “거룩케(성별)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표현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한다. 사도행전 26:18에서 주님은 그의 사람들에 대해 “나를 믿어 거룩케(성별)된 무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 성도들도 “씻음과 거룩함과(성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고전 6:11).

위에서 언급한 말씀들은 모두 다 신분적인 성별 또는 성결을 말한다.

실제적 또는 점진적인 성별

성결에는 실제적인 성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성별이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실제적인 성별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룩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17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성결)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고

린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다.

성별하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때로 이는 소화하기 힘든 진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짐승 폐와 같이 우리 주위에 흡수되기를, 무리 가운데 잠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밭람이 말한 것처럼 되기를 원하셨다. “이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민 23:9).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별의 진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했으며(레 19:19)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야 했다(레 19:19). 그들은 또한 소와 나귀를 함께 맹에를 빼어 밭을 갈지 말아야 했다(신 22:10).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소리쳤다(삼상 8:5,20).

완전한 성별

네번째 요소는 완전한 성별이다 성도들에게 있어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영원히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요일 3:2) 분리되게 될 것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주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한 성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1:22에서 보는 것이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

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른 구절에서 유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유 24절).

이와 같이 성별에는 구원 전에 이루어진 것,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것 모두 4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세번째 성별이다.

다음에는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예로 들어 그리스도인의 인격개발을 다루고자 한다.

6

하나님의 전신갑주

신 약성경에는 거룩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있다.

거룩은 옛것, 즉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골 3:9,10). 새 옷은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새 삶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롬 13:14).

또 다른 모양의 거룩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로써 나무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다(요 15:2,3).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다(갈 5:22,23).

사도 바울은 한때 거룩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에는 신자들 안에 있는 사랑으로 보았다(고전 13장). 그 후 그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군인들의 갑옷을 통해 영적 진리를 설명하였다(엡 6:10~18) 그가 어떻게 이 진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갑옷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이며 각 신자들은 군인이다. 싸움은

매로 그 강도(強度)가 다르기는 해도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대장 즉 주님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표적이 된다. 사단은 그의 힘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비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롬 8:31). 결국은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빌 2:11을 보라).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동료들이 전장에서 시체로 변하는 것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 왜 그 많은 유명한 전도자와 선교자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간단 말인가? 왜 그리도 위험성이 높은가? 이에 대한 답은 물론 대적은 우리가 무장하지 않은 굽소를 찾아 이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베소서 6:10~18에서 우리 자신들의 보호장비, 즉 갑옷의 목록을 말하고 있다. 이 갑옷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먼저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야 한다(10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망과 함께 장난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적(敵)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고후 12:9). 연약한 군인이 승리하게 될 때 모든 영광은 그에게 능력을 더하신 주님께 돌아가게 된다.

전신갑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띠와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그리고 많은 기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의 군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과 대조해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군인들의 무장이 영적인 무장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고후 10:4)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병기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의의 흉배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의의 옷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만일 이 갑옷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진리,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이나 거짓교리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이며 이미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의미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갑옷들이 강한 그리스도인

의 특성에 대한 요소들이라고 믿는다. 만일 그리스도인 군인이 흠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사단이 그를 공격할 곳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야 할 궁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류의 군인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마귀의 계략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로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준다. 사단은 아주 교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한 아주 교묘한 계략을 사용한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알고 그의 흉악한 책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비해야 할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요 8:44). 그는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거짓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속이는 자이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의 일꾼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는 때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또 큰 이적이나 거짓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인다(살후 2:9). 그는 속이는 뱀으로써,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의심과 부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심는다(고후 11:3). 그는 형제를 이간하며 송사하는 자이다(계 12:10). 주의 사람들을 송사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는 모방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모방한다. 그는 애굽의 술사들에게 능력을 주어 모세가 베푼 이적들을 모방하게 했다(딤후 3:8).

마귀는 성도들로 용기를 잃게 만든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에게 만일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너무 낙심하여 사단으로 턱을 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후 2:7 ~11). 마귀는,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혼히 잘 사용하는 전략은 분리시켜서 이기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분쟁하는 짐마다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도 “분쟁”을 심기를 원한다.

사단은 때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벧전 5:8). 사단 마귀와 마귀들의 목적은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펁박한다(계 2:10). 그는 또한 마약이나 강신술, 술, 부도덕, 그리고 악을 통하여 사람들을 파멸시키려 안다하고 있다.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막 8:31~33)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죽는데 있어 부끄러움이나 고난 또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때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승리의 도취감, 즉 교만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공격을 한다.

사단의 무리들

우리는 때로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 악한 정부, 그리고 진리의 대적들과 싸우기는 해도 진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울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이다(12절). 악령들—아마도 범죄한 천사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들은 군

대처럼 조직과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악의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그분의 종들을 펍박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한다.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적이 모두 그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세가지 기본적인 적은 세상과 육 그리고 마귀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과의 싸움이다.

굳게 서라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우리의 적은 전지하지는 않아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이나 인격에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 사무엘하 23:9,10에서 우리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굳게 서서 그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을 본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인내와 결심이다.

이제 바울은 하나 하나의 병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세가지는 기본적인 유니폼이고 나머지 세가지는 싸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리의 띠

첫째 병기는 진리의 띠이다. 일반적으로 띠의 사용 목적은

병사가 싸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겉옷을 잡아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방탕과 출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 경고하셨다(눅 21:34).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얹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다(딤후 2:4) 우리는 탐욕과 부, 명예, 권세욕, 육욕, 그리고 호사스러운 삶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띠가 필요하다.

띠는 또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의 절대적인 영감을 믿으며 이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이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책망 또는 고소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에게 준 모든 명령들을 순종해야 한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 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경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멀게 해주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게 해줄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순종하며 또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낼 때 그 삶은 가장 안전하다.

의의 흉배

두번째는 의의 흥배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이든 그릇된 것이나 음침한 것, 또는 의문스러운 것들을 피하는데 예민한 양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의 흥배를 불이고 있을 때 어떤 더 큰 욕을 허용할 수 있는 조그만 타협도 거절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매수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며, 떼어먹지 않는다.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데 있어서도 정직하다. 그리고 차라리 낙제할 망정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를 훔쳐보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며, 돈 지불을 꺼려해 편법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친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의의 흥배를 불이고 다니셨으며(사 59:17)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복음의 신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이다(15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준비를 의미한다. 우리는 “주여, 오늘 저를 영혼들에게로 인도해 주소서. 문을 열어 주셔서 누구에겐가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함으로 매일 아침 이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보면 그를 한 걸음씩 주님께 인도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나 그리스도의 사역, 죄인들의 책임들에 대한 말씀을 암기하여 성령님께서 때에 합당한 말씀을 사용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한 노(老) 성도가 심한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음날 그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여 “좀 어찌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아주 좋아! 이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은 “평강의 예비한 복음의 신”이

었다.

믿음의 방패

네번째 병기는 믿음의 방패이다. 이 방패는 모든 화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16절).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하며, 거짓 송사하고, 악하고 헛된 공상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그 약속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사단의 화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 배가 파선되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다(행 27:25).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17절 상).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지적인 공격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은 모순을 담고 있다는 고등비평가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뱀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같은 일이 일어날까 염려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

이같은 공격에 대한 바울의 반격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0:5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이론과 사색, 그리고 철학이 주님의 가르침과 맞는지 점검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주의 가르침과 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구원의 투구는 또한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8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의 집, 영원한 안식처에 도달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때로 싸움이 불리하게 전개될 때도 있다. 우리의 적이 승리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앞서 우리를 인도하던 좋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힘이 없어 보인다. 많은 군인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은 기진맥진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매달려 있어 영적 싸움을 싸울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군대는 생기가 없어 기진맥진한데 지옥의 군대는 원기가 왕성한 것같다. 전세(戰勢)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울할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파도가 거칠게 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같지만 썰물은 그 파도를 물리가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검

마지막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다(17절). W. E. 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케 하시는 부분적인 성경 말씀, 즉 우리 마음 속에 숨겨(쌓아) 두었다가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말씀을 의미한다.” 성령의 검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한 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예이다. 주님은 닥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 그 때 필요한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분은 세번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을 암기하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한 대학생이 그 친구에게 교수가 자꾸 자기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때 그 친구는 그에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고 말해 주었다. 만일 그가 전에 잠언 19:27을 암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성령의 검을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도

곧바로 따라오는 병기는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병기의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군인들이 본부와 갖는 필수적인 대화 통로이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그날에 대한 하

나님의 뜻(계획)을 알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군을 부르기도 한다(왕하 6:17). 기도를 통하여 그는 승리를 거둔다. 기도는 산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사용해야 한다. 중보와 간구, 고백, 탄원의 기도를 해야 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를 곁들여야 한다. 기도는 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감동되고 그분께 인도되며,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 기도에는 (끝까지 지켜보는) 경계와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싸움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결론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군인들을 무장시키실 때 전면만 무장시키고 후면은 무장시키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사는 절대로 뒤로 돌아서서 달아나서는 안된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군과의 접전에서 참패한 후에 나폴레옹은 북치는 자에게 뒤로 퇴각하는 군인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는 “폐하, 당신은 한번도 제게 후퇴하는 자들을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그 말에 감명을 받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후퇴는 없지만 적을 피해야 할 때는 있다. 음란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에서 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전 6:18). 그리스도인은 또한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한다. 꼭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어느 사람이라도 이를 피해야 한다(고전 10:14). 그는 또한 탐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멀리 해야 한다(딤전 6:11). 그리스도인은 젊은이의 정욕, 즉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한다(딤후 2:22). 이러한 경우에도 망가는 것은 비겁함이나 수치, 그리고 폐배가 아니다. 이는 싸움의 최고봉에 서서 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터에 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부상 당하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범죄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를 위해 한번도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번도 그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믿음에 있어 파선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존 돌세이(John Dorsey)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신자들의 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나는 오늘 기도처에서 사단과 처절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 아니라 사단이었다. 그는 내게 ‘너는 기도할 수 없어. 오래 전부터 벌써 틀렸는 걸. 무릎을 꿇고 무어라고 말은 하겠지만 네가 알다시피 너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는 없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나는 내 투구를 귀까지 내려오도록 깊숙이 내려썼는데 그로 인해 그의 소리가 적게 들렸으며 두려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나의 다른 갑옷들을 점검해 보았다.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허리에는 진리의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꽂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내 의

의 흥배가 가슴을 보호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의 방패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사단의 화전은 방패에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사단이 부끄러운 얼굴로 슬그머니 물러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이란 학교의 선생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내주신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진실은 또한 성결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없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더 나루기로 하겠다.

7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거룩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라는 신비로운 혼합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동참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의 장소에 두어야 한다.

“거룩에 대한 조건 충족이 없이 거룩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연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에 대한 안내판은 아주 분명하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하자. 예를 들어 거룩하기를 원하면서 기도와 헌신을 등한히 하는 것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을 향해 걷는 것과 같다.”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이는 그저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의지적인 순종에 대한 수백 구절이 넘는 많은 말씀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

는 것이다.

승리의 삶은 “소명의 제단”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재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제단에 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제단에 드린 자신의 의지는 지속적인 노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곧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시게 하자”라든지, “약속을 믿으면 충만을 받는다”, 또는 “노력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등 아주 그럴싸한 구호들에 조심해야 한다.

도날드 캠벨(Donald Campbell)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혼자 역사하시지 않고 그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순간적인 거룩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먹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약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거룩에 대한 묘약이나 지름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거룩을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심술을 부리는 자이거나 신경과민, 급한 성격, 참지 못함, 무뚝뚝함, 사랑치 않음, 신경질, 자기 중심적, 속임, 헤론 맹세, 신성을 더럽히는 언행,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우리의 동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동참을 유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윤법 아래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두시는 것이다. 신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를 주제이다.

8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질 문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그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만일 프로그램 구상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규칙과 법칙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법 아래 두어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법을 지켜 그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는 거룩해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거룩이다.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 안식일 준수, 술과 마약을 금하는 것, 영화나 담배, 춤, 음행 등을 금하는 것이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형벌이 없는 법은 하나의 권고일 뿐이다. 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형벌로 구원 상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율법 준

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곧은 믿음(길)을 지켜주는 것은 형별에 대한 두려움뿐이라고 믿는다.

거룩에 대한 이같은 접근은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어떤 법을 순종하거나 피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바울은 그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는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했다. 그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었다(갈 3:3).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룩에 대한 이같은 접근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제임스 데니(James Denney)가 말한 것처럼 정도를 놓는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다. 율법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요구하면서 그 힘은 공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저주한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죄가 살아난다(롬 7:8~13).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금한 것은 더욱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거룩이다. 주님은 사실, “내가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 이에 맞는 삶을 실라. 내가 너희에게 내주하도록 성령을 주었으니 그가 너희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

이다.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그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이 자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위한, 즉 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들을 가득 기록해 놓았다. 이 교훈들 중 더러는 심지어 계명들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책임 또는 임무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신분에 맞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

온혜 아래서는 거룩에 대한 동기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불하신 값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보리 동산에 대한 기억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신자는 묻고 이에 곧 대답한다.

“저를 사로잡아 당신께 이끌 법이 필요합니까? 포로는 제 마음이며 즐거움은 절대로 자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온혜 아래만 거하게 하면 곧 나가서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온혜의 교리는 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펄전(Spurgeon)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그 본성이나 은혜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단 말인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주한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내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로 모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설득력은 없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처럼 은혜도 오용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는 자들도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무법자들은 아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전서 9:21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법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옛날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이를 대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날 교회들에는 여러 부분에서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 자신의 계명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9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문 제는 “신자들에게 합당한 품행은 무엇인가?”이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활동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

성경은 신자들이 하늘의 소명에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많은 질문들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혼돈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성경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후 6:14).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함께(동업) 하거나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 불신자들을 동침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나 상담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수백 가지의 상황들이 있다. 만일 성경이 삶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다 다루었다고 하면 성경이 너무 커서 아마 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련의 원리들을 주셨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도 괜찮은가”라고 그 원리 하나

하나를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문제의 정보를 입력하고 거기에 맞는 통제키를 움직여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다. 여기에 몇가지 질문식 원리들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는 어떤 해(害)가 없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원리를 전해 주었는데 그 원리는 의식주까지도 적용된다(고전 10:31). 유명한 전도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거지를 한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위에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매일 세 번씩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다. 비록 주를 믿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는 들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농사일을 할 수 있다(엡 6:5~7).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정직하지 못한 일, 깨끗하지 못한 일, 의롭지 못한 일, 또는 의문스러운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에 관여하면서 “주여, 제가 하려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방법, 음악,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보다는 육,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요 17:16).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약 4:4; 요일 2:15).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세속적인 그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신 직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 자라가면서 그 직관은 점점 예민해지게 된다.

한 그리스도인이 TV를 주문했는데 그 TV를 싣고 온 차에 “온 세상을 당신의 안방에”라는 광고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TV를 다시 들려보냈다.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하셨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오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 (벧전 2:21). 그러므로 우리의 품행의 모든 분야에 이 질문을 적용해보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몇 년 전 찰스 셸顿(Charles Sheldon)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썼다. 결과는 과히 혁명적이었다. 어떤이들은 예수님께서도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말한다(막 2:15,16).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에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께 신실하셨다. 그분은 절대로 그들의 죄를 묵과하거나 그 삶을 타협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만일 그들의 죄를 입증하고(엡 5:11)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부도

덕한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롬 1:14).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본이 거룩에 대한 하나의 표준만 되어서는 안된다”(R. C. 채프만).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도 좋은가?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아는 사람은 없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요일 2:28). 만일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의심스러운 일이나 음란 영화, 음란 서적 등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다 발견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물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촉진제가 된다(요일 3:3). 그러나 진리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딤후 4:8) 그 소망으로 인하여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떤 신분에 맞는 것인가?

다른 장에서 두 성품에 대해 더 깊게 다루겠다. 여기에서는 그에 대해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옛 성품은 아주 악하고 새 성품은

말할 수 없이 선하다. 이 두 성품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내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이는 성품이 이긴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고 가는 곳, 그리고 사귀는 친구와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성품을 먹인다. 우리는 늑대를 먹이고 양은 짖기면서 양이 이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거하신다(고전 6:19).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분이 거하실 거룩한 곳, 즉 성전으로 보신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곳, 즉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직 부도덕이나 폭식 또는 술취함 같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담배나 마약 같은 암적인 것들이 몸을 주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합당한 건강의 원리를 따르며 주를 위하여 몸을 잘 관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우리는 다 왕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엡 5:8; 골 1:10).

프랑스의 루이 16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한 악한 여인이 그에게 더러운 말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이 어린 왕자는 주먹을 쥐고 발을 구르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 그런 더러운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도탕의 진흙탕에서 뭉구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할지는 모르지만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인생 낙오자처럼 사는 것을 보면 놀란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그렇게 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고 기대한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줄 알았는데…”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같은 죄를 습관처럼 범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것을 보면 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야 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기대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돈을 사용하는 일이라면 더 가치 있게 사용 될 수는 없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으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이 있다. 우리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죄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찮은 것이나 일시적인 것,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사용하여 영광의 문에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다(눅 16:9). 이 원리는 신자들이 쓰는 모든 돈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을 위하여 돈을 쓰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

를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더 낫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어떤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을 위해서 또는 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낭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써 시간을 아껴야 하는데(엡 5:16),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 하찮은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초청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사회나 가정의 모임보다는 교회의 모임이 우선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신실한 결정은 사역의 영역을 넓혀 준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삶에 있어 어떤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있다. 그것들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거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주목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3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15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20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8:9~13에서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짐에 앓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라고 말했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전 10:23)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생각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원리)은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는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짐을 지우면서까지 즐기는 우리의 자유는 그 자신에게도 사실은 덕이 될 수 없다”(W. E. 바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을 수 있고 순한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슬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찰스 스필런(C. H. Spurgeon)이 애연가였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중에 하나였지만 자신의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변호하였다. 하루는 광고판에 “스페셜전이 피우는 담배를 피우자”라는 광고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담배 피우는 것을 중단하였다.

의심스러운 것인가?

“믿음으로 죽어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이 말씀은 아직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나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면 죄라는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것은 전혀 나쁘지 않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양심에 분명치 않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거나 합법적이라는 양심의 확신이 없는 데도 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때로 그것의 흑백을 분명히 가리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법칙은 “의심이 간다면 더러운 것이다”이다.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법칙을 받아들이라. “의심스러운 것은 해서는 안된다.”

악의 모양은 없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22을 공인된 사본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악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이다. 현대의 역본들은 거의가 동일하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구역본들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적한 산길을 산책하면서도 전혀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는 있다. 주일학교 교사가 술집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가 술집에 들어간 것을 우연히 본 주일학생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짐스러운 것은 아닌가?

죄와 짐은 조금 다르다. 죄는 언제나 그른 것이지만 짐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히 12:1). 올림픽 경기에는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다. 만일 선수가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기 선수에게 5kg 나가는 셔츠를 입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입을 수는 있겠지만 입는다면 달리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 6:12, 10:33)라고 말할 때 무게를 생각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주하는데 있어 짐은 무엇인가? 신령하지 못한 친구 관계, 시간만 낭비하는 직업, 지나친 취미 생활, 지나친 운동, 무분별하고 지나친 TV 시청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주에서 승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든지 짐이 될 수 있다.

구속적인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은 합법적이면서도 우리를 얹어매므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

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고전 6:12)고 말했다. 그는 그 자체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때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에 매이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 마약이나 스포츠, 그리고 TV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어떤이는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있어 가장 좋은 점검은 그리스도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이 증명하실까? 그분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다면 이 일로 인해 나는 부끄럽지는 않는가? 사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옛 흑인 영가는 “주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네. 주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라고 말하고 있다.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원리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여 적용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크게 혼들릴 때가 있다. 우리는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하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인 부흥을 원한다. 우리 모두는 원하기만 한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10

사실을 바로 이해함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진리가 몇가지 있는데 함께 살펴보자.

두 성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롬 7:14~25).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하고 부패한 옛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을 때 받은 거룩하고 깨끗한 새 성품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는 ‘아담의 성품’,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죄는 내 마음에서 나갔지만 할아버지가 아직 뺏속에 있다”라고 말했다.

옛 성품은 전적으로 악하다. 바울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다. 그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 안에서 선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할 때 놀라거나 낙심해서도 안된다. 우리의 옛 성품은 전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악하다. 이 옛 성품은

오랫동안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라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보다 낫지 못하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성품을 개선시키려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옛 성품을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옛 성품을 그의 등뒤에 짊어진 죽은 시체로 비유했다(물론 시체는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낸다). 그 시체는 그가 가는 곳마다 등뒤에 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였다.

새 성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기에만 능하다. 이 새 성품은 청결하고 고귀하며 의롭고, 사랑스러우며 또한 진실하다. 새 성품의 모든 생각과 소욕, 동기, 그리고 행동은 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 서로 다른 두 성품이 지속적으로 서로 투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이 둘은 절대로 서로 화평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 투쟁은 거듭날 때부터 시작된다. 새 신자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내적 투쟁을 경험하게 된다. 옛 성품은 중력의 법칙처럼 그를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새 성품은 그를 높은 거룩의 경지에 옮겨놓기를 원한다. 이 두 성품의 싸움은 아주 치열해서 때로 신자는 그의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은 그에게 그러한 투쟁이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만일 그가 두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성품의 싸움을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로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녀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라고 외쳤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동시에 배교자의 임재를 느낀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이런가?’라고 탄식하는 경향이 있다. 늙은 형제 육이 그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다. 젊은 형제 영은 조용하고 차분하여 거친 늙은 형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리브가의 아이들처럼 장자가 차자 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모든 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번 하우스).

중생할 때 시작된 싸움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동안 계속된다. 이 싸움은 휴거되거나 죽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나 한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이 옛 성품을 떠나 주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다(고전 10:13). 청년들은 청년의 정욕에 시달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목회자 또는 선교사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둡고 불같은 시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운 것처럼(창 25:22,23) 모든 신자들은 다 그 안에 서로 싸우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다.

새 성품은 청결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는데 비해 옛 성품은 무엇이든 청결하지 못한 것을 좋아한다. 이 둘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와 까마귀 같다. 까마귀는 홍수로 인해 죽은 온갖 더러운 것을 먹었다. 그러나 비둘기는 깨끗한 장소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창 8:6~12).

옛 성품은 할리우드의 음란한 것들이나 TV의 음란 프로그램 배를 채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새 성품은 순전한 하나님

의 말씀의 젖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이는 성품이 이긴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의 개에 대해 불평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어떤 개가 이기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물어’라고 말한 개가 이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두 성품도 이와 같다. 우리가 “물어”라고 말하는 성품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빼꾸기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 예를 들 수 있다. 빼꾸기는 다른 새의 집에다 알을 낳아 그 새로 하여금 자기의 알을 부화하게 만든다. 그 새가 알을 품어 부화시키면 먹이를 줄 때 빼꾸기 새끼도 함께 먹이를 먹는데 모든 것은 어느 새끼가 먹이를 더 많이 먹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다. 빼꾸기 새끼가 먹이를 독차지하면 다른 새끼는 죽게 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그것을 한 것은 내 옛 성품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 평계를 대고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평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인데 되지도 않을 일이다. 하나님은 성품에다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

당신은 아마 과속으로 적발된 어떤 사람에 대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선생님 속도를 위반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옛 성품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그에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옛 성품이 속도 위반을 했으니 그에게 3만원, 그리고 공범인 새 성품에게 3만원, 그래서 6만원의 벌금을 물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옛 성품에게 평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죄를 짓는 것과 습관적으로 짓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또다른 중요한 진리는 죄를 범하는 것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를 범한다. 무죄하지는 않지만 죄 아래 있지 않은 것이다. 요한은 그의 첫 서신서에서 믿는 자도 죄를 범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요일 1:8,9).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6,8,9)고 말했다.

요한이 여기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고 한 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요일 3:8). 죄짓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신자는 마귀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죄짓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죄가 습관적인 것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습관적인 죄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만일 성경이 이를 밝히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침묵은 모든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경지, 즉 완전히 성별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직후, 즉 극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죄의 성품이 제거되며 그후로부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이 다 죄이다(롬 3:23). 죄는 불법인데 이는 그 자신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요일 3:4). 잘못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이다(약 4:17).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는 것도 다 죄이다(롬 14:23).

“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최선의 것도 더럽히며 그 회개를 망쳐 놓는다. 그리고 그의 눈물에 불순물을 섞고 그의 믿음에 불신을 집어넣는다.”

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회개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케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보내는 가장 경건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경건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용서가 필요하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자원함이다.” 그는 이제 죄를 미워한다. 그는 죄를 범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도덕함에 대한 자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어떤이는 아마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피할 수 없다면 왜

요한일서 2:1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줄 수가 없으시다. 예를 들어 그분은 “할 수 있으면 죄를 적게 범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즉시 그분은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셨다. 같은 구절에서 그분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다. 이 앞절에서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라.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요일 1:10).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즉 무죄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도 있다. 로마서 6:2은 신자들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신분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보신다. 옛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말한다. 만일 2절의 의미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11절의 권고는 불필요한 것이다. 다른 세 구절도 신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롬 6:7,18,22). 이 모든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예를 사용하고 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신약성경에는 사람들이 무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온전”, “온전해지다”, “온전하다”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마 5:48; 빌 3:12,15; 담후 3:16,17; 히 6:1, 9:9, 10:14, 13:20,21; 약 3:2; 계 3:1,2). 일반적으로 말해 “온전”이란 단어는 “완성”,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한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절대로 그 의미가 무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9:9에서는 온전한 양심을 말하고 10:14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말한다. 무죄의 의미에서 온전을 가르치는 또다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23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영, 혼, 그리고 육—성결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요한일서 3:6,9과 5:19과 같이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구절들은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써 지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그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며 죄짓는 것이 그의 삶의 특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중대한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교리라면 무엇이든지 중대한, 다시 말해 심각한 것이다. 온전히 무죄한 상태에 이르기를 위해 투쟁했던 많은 진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멸 가운데 빠졌으며 많은 경우에 압박과 정신쇠약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H. A. 아이언 사이드는 “거룩, 그 허와 실”이라는 책에서 그

자신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던 것, 그로 인해 정신적인 쇠약에 빠졌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한 바른 진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평강에 대해서 그 자신의 경험을 적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진리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신자들을 주관치 못한다는 기독교의 기초를 부인하는 것이다(롬 6:14).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요일 1:8). 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롬 8:2).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관계와 교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그의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잊어버린다. 가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지만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그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무엇도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요일 1:5)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행복한 가정의 교제는 죄가 고백되고 버리기까지는 단절된 채 그대로 있다(요일 1:9; 잠 28:13).

극복할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신자들은 그가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로부터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전 10:13). 우리 모두는 늘 우리 옆에 붙어 다니는 죄,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 안에 침투하여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이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과 죄가 그분의 능력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단 한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나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때로 부인되기도 한다. 목회자들은 때로 교인들에게 거룩에 이르는 지름길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들은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사람들로 앞 “제단”에 나아와 성령의 충만 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권한다. 만일 그러한 극적인 체험

들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거룩의 경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속은 것이다.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란 그때그때 되어지는 일이지 한번에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약속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신 33:25)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고 말했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이다. 이것은 현재의 지속적인 행동을 말한다. 강대상 앞에 나아가 자신을 드렸던 어젯밤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범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필요 없이 자신이 히브리서 10:26,27에서 말하는 고범죄를 지을까봐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죄를 범할 때에 자신들의 의지가 관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범죄를 범한 것이며 그러므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를 짓는 것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고범죄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범죄는 배교하는 죄이다. 이 죄는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실로 믿는 신자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고범죄를 지었을까봐 염려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배교한 자들은 아주 완악하고 완고해 그와 같은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

이제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이나 자세가 있다는 것이다. 금욕주의는 거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로새서 2:23에서 바울은 외적인 거룩을 의미할 수도 있는 고행과 자기 부인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육체 죽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말했다. 수 도원 제도는 거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을 어떤 산장에 고립시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신의 성품(본성)으로부터는 분리시킬 수 없다. 자기 반성도(자신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역자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승리가 없다. 자신에 집착한다는 것은 마치 배가 그 뒷을 배 안에 내리는 것과 같다. 수동성 또는 무저항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다. 거룩은 한가하게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또한 열심히 시험에 대해 공부한다고 해서 임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을 더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낙심하여 포기한 자에게도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패배한 것이며 하나님은 패배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1

승리의 길: 성령충만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케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참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다른 많은 분야들처럼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신비로운 혼합이 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며 우리는 이를 사용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주 미묘하고 신비한 것처럼 들린다. 이는 마치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가능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신자라면 누구든 가능한 일이다. 좀더 간단히 그리고 더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충만과 관계된 기초적인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죄를 축적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있

는 죄를 알자마자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잠 28:13, 요일 1:9). 모든 죄가 나 하나님을 내적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라면 그들에게도 고백해야 한다.

진정한 고백은;

즉각적이어야 한다—우리는 그날 저녁이나 주말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내가 혹시 잘못했다면…”이나, “당신이 만일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다면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어느 여인과 같이 하지 말라.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어떤이는 자기는 그저 뒷줄을 훔쳤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고백은 전체적인 것이어야지 부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있는 그대로 말하라. 조금 경솔했다고 말하지 말고 술취했었다고 말하며, 빌려 갔었다고 말하지 말고 훔쳐 갔었다고 말하라. 베드로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죄를 고백하겠다고 하는 자가 “나는 배 한 상자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밤에 한 상자 더 훔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다. 진정한 고백은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저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은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용서에 대한 확신은 변하기 쉬운 느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온다. 또 어떤이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알지만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학대로서 불필요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잊어버리신다(히 10:17).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꺼내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그 죄는 이제 끝나 잊어버린바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졌던 한 회개자가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또다시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무슨 죄를 또 지었니?”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두 번째 죄를 짓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첫 번째 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이다.

코리 텐 봄(Corrie ten Boom)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낚시 금지’, 즉 우리의 옛 죄를 낚아 올리지 말라는 싸인을 걸어놓으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다른 사람이 이미 고백하여 용서받은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이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에게든 아니면 사람에게든 아니면 전 교회 앞에서든 죄를 지은 대로 해야할 것이다.

레이드 사무엘(Leith Samuel)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조언을

하였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라. 당신에 대해 읊란한 생각을 품었다고 고백하여 그 여인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처럼 더 깊은 죄에 빠져들지 말라…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라. 성도들을 비난하고 대적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면 당신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라.”

해리 로이드(Harry Lloyd)는 그의 친구들과 손님들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의 자기의 고결함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한 것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공개 서한을 보냈다.

“저는 제 개인의 욕심에 따라 저의 모든 힘과 우선순위를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이나 삶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제가 드린 십일조는 회생적인 드림과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역량을 생각할 때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또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주 아내나 아이들에게 냉정하며 사랑스럽지 못한 남편과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충실히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왜 교만한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 가운데 저에 대한 칭찬을 거부하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칭찬하지 마십시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이를 받아들이며

기뻐한다. 위와 같은 솔직한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배상하라

은혜의 하나님은 가능한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무엇을 부당하게 취했으면 그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훔친 돈의 이자까지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 있는 삽개오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그는 구원받은 후에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 19:8)라고 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배상은 진지해야 하고 철저해야 한다. 우리는 세무서에 “저는 작년에 제 수입을 점검해 보면서 세무보고 때 제 수입을 잘못 보고한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10만원을 보냅니다. 그래도 제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우면 나머지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 보낸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변해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은 그 사정을 아시고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 주실 것이다.

수년 전 니콜슨(W. P. Nicholson)이 벨파스트(Belfast)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훔친 연장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연장이 돌아와 회사들은 연장 보관 창고를 따로 지어야 했다. 결국 회사들은 더이상 둘 곳이 없으니 연장을 가져

오지 말라고 광고를 했다.

F. B. 메이어(F. B. Meyer)도 케스윅(Keswick) 집회에서 말 씀을 전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돈을 빌렸거나 흄친 자들이 배상할 돈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몰려들어 우체국이 혼잡하였다.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거룩을 알기 위해 취해야 할 세 번째 행동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께 드려야 한다(롬 12:1,2, 6:19) 드림은 하나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이 드림을 계속해야만 한다. 맨 처음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주께 드렸던 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날마다 매순간 우리의 뜻 대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권리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로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드림이 우리를 유용하게 한다.

안네 그란니스(Anne Grannis)는 그의 글에서 진정한 성별에 사로잡힌 것을 본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가구들을 들여놓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도록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직 조용할 때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그분은 언제나 이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루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나의 관심과 불완전을 다루시는데 이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서로

의 뜻을 바꾸기 때문이다.”

테일러 스미스(Taylor Smith) 감독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끓고 “주여, 이 침대는 당신의 제단이고 저는 당신의 산 제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다.

아더 리어슨(Arthur Pierson)은 조지 뮬러(George Muller)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비밀)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더니 점점 그의 머리를 숙여 무릎에 닿을 때까지 숙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오래 전 어느날 내 생에 조지 뮬러가 죽는 날이 있었지요. 젊은 청년으로서 그때 제겐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주여,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스(Booth) 장군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는 “제가 17살 된 소년이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윌리암 부스(William Booth)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삶이 말씀에 푹 젖게 하라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에 푹 젖도록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는 말씀을 읽는 것과 암송, 공부, 묵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행동강령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전도 또는 어

면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 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육상을 통하여는 이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시편 기자도 말씀과 거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9,11)라고 말 했다.

예수님도 기도에서 이를 확실히 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요 17:17).

현대의 격언도 이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이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차가운 마음과 성경책 위에 쌓인 먼지는 하나님도 빼어놓을 수 없다.”

성령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것이다. 바울은 에베 소서 5장에서 성령충만 후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19절)고 말하고 있다. 그는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물질은 서로 같은 것이다. 결론은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같다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거룩이 있을 수 없다. 경건한 맥掬니(McCheyne)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도 사람을 거룩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분은 천사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도 말씀 없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듯 영혼을 말씀의 젖으로 먹이신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지 않고 체험만 의지한다면 속기 쉽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떠나서도 거룩은 있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포함시키셨다. 어떤 기도이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 할 수 없다. 여기 우리가 우리의 매일 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기도의 목록들이 있다.

“주여 제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이 땅에서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거룩에 이르게 해 주소서.”

“비록 제가 원할지라도 저를 죄에서 건져주소서.”

“죄로 인도하는 시험을 허락지 마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사악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이름에 불명예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저를 죄를 짓게 허락하시려면 차라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소서.”

무릎을 끓지 않는 자는 거룩한 삶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합당한 말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으라

거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래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들에게서 놓였을 때에 즉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다(행 4:23).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히 10:25).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극적인 방법으로 임할 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이는 “성령님에 대한 공유적 체험”이라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이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이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나를 기억케 하며 이로 인해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은 때로 주의 만찬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악을 대적하는데 있어 힘을 얻게 한다. 지역교회의 모든 모임들도 마찬가지다.

주를 위해 바쁘게 일하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전 9:10).

아이삭 왓츠(Isaac Watts)는 “사단은 한가한 자들의 손을 찾

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든 일이든 주를 위해 바쁘게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시험과 위험은 우리가 바쁘게 일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다. 다윗은 부끄러움 가운데서 이 교훈을 배웠다. 봄날 왕들이 전장에 나가 싸울 때에 다윗은 집에 거하여 뜰을 거닐며 음욕을 품었다(삼하 11장).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살인을 하였다.

소돔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성연애를 생각한다. 그러나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들의 또 다른 죄는 “태평(안일)함”이었다(겔 16:49). 음란의 소굴이 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즉 우리의 힘의 방향을 원시적인 것에서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정열을 불굴의 봉사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일로 자신을 죽이고 기도로 다시 소생 해야 한다. 생산적인 일로 바쁜 사람은 많은 위험들로부터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한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시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몸을 쳐 복종시키라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했다(고전 9:27). 현대 영어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앞만 보고 달리며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경기에 참여시키면서 내 자신은 오히려 탈락될까 봐 자신을 쳐 복종시켜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 육체적인 단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성욕이나 잠, 음식, 그리고 운동과 같은 훈련된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거나 충족시키지 않았다. 우리도 일주일에 수천 번 우리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저 느낌이 좋으면 하라”는 세상의 지혜를 거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1:12).

엘라 웨일러 윌콕 (Ella Wheeler Wilcox) 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거절한 시험들로 인하여 부도덕한 죄의 목록들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잠자는 시간을 조절함에 있어서 자명종이 하나의 좋은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이나 마시는 것에 대한 조절에 있어 “식물의 풍족함”이 소돔의 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겔 16:49). 이는 또한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육체의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딤전 4:8). 다시 말해 이는 시험이 와서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당신이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내보내라는 의미이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몸을 쳐 복종시키는 데에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또한 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마음은 우리 행동이 흘러나오는 샘이다(잠 4:23). 야고보는 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약 1:13~15).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지속된 행동은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는 임신, 출생, 성장, 죽음과 같은 생의 바퀴와도 같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대로 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잠 23:7). 그래서 TV나 비디오, 녹음기, 라디오, 영화, 잡지 등 어느 것인 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일깨우는 것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때로 농담으로 젊은이들에게 성경에서 TV는 오직 두 번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no <Tele>Vision) 않더라”(삼상 3:1). “내 눈을 지켜(Turn) 혀탄한 것을(Vanity) 보지 말게 하시고”(사 119:37; Turn에서 첫 글자 T와 Vanity에서 V를 합쳐 TV).

망년회 저녁에 TV가 고장난 그리스도인 부부가 새로운 TV를 사야할지를 주님께 물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시편 101을 읽었다. 그들은 2,3을 읽고 그들의 답을 얻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삶에는 악의 요소가 있다. 유다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함으로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유 23절).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빌 4:8). 이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성령의 능력”이다. 경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것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자. 우리는 죄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생각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된다. 너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닮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3:18에서 말한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연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다.

“우리가 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수건을 벗은 얼굴…”—죄는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우리는 벗은 얼굴이 된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막는 것이 없게 된다.

“거울을 보는 것같이…”—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주의 영광…”—성경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하신 인격, 그리고 그분의 길과 사역의 아름다움을 본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우리가 그분을 흡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어떤 사람이 “주를 쳐다봄으로 구원받고 계속 바라봄으로 성결을 얻는다”고 말한 것과 같다.

“영광으로 영광에…”—이는 한 차원의 영광에서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성령님에 의하여 되어진다. 성령님은 성경에 나타난 구세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신다.

윌리엄 롱스태프(William D. Longstaf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당신은 그분을 닮게 될 것이며 당신의 친구들은 그대의 품행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죄를 짓기보다는 도망하라

때로 당신의 건강과 시험을 인하여 몇 마일을 도망쳐야 할 때도 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창 39:8). 사실 그는 그의 곁옷을 잃어버렸지만 면류관을 얻었다. 그는 “싸우며 도망친 사람은 하루를 더 산다”는 속담을 입증하였다. 우리는 특별히 음행과(고전 6:18), 우상숭배(고전 10:14), 탐심(딤전 6:11) 그리고 청년의 정욕(딤후 2:22)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9).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수족을 잘라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무감각하게 대하지 말고 신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극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 도망칠 때 가는 곳을 알리

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처럼 시험을 대하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해야 할 것은 아직도 더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했다(롬 6:11). 여기에 이 두 형상은 잊을 수 없도록 아주 생생하다.

여기 아름다운 판에 시체가 뉘여 있다. 전에 살았던 여인이 판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한다.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다. 그녀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시체는 전혀 반응이 없이 누어 있다. 그녀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를 범죄케 하려고 유혹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경험이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구원받기 전의 애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급히 뒤돌아서서 걸었다. 그녀는 따라오며 “어거스틴. 나예요 나!”라고 말했다. 그는 앞을 보고 걸으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죽은 시체가 하는 것처럼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즉시 순종해야 하며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한 것을 만지지 말고 피하라

또다른 실질적인 조언은 만지는 것이나 부주의, 애정을 표현

하는 용어와 몸짓, 그리고 의심스런 행동같은, 사소한 것 같지만 벼룩없는 행동들은 삼가는 것이다. 월간지 무디에서 제리 젠킨스(Jerry Jenkins)는 그 자신과 아내, 가족, 상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간증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었다.

- (1). 나는 언제든지 관계가 없는 여인을 만나거나 식사 또는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꼭 세 사람이 되게 한다. 상황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때에는 내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한다.
- (2).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삼간다. 악수를 하거나 인사에서 어깨를 맞대게 될 때는 친구나 친척만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한다.
- (3). 여자를 칭찬할 때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에 한하며 그녀 자신에 대한 것은 피한다. 그녀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그녀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 (4). 시시덕거리거나 음탕한 말들은 농담이라도 삼간다.
- (5). 내 아내에게 말이나 또는 편지를 통하여 내가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으며….” 다이아나(Diana)는 질투하는 타입은 아니며 나에게서 그러한 서약을 늘 확인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의 이 서약과 그것을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
- (6).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편지를 쓰거나 사무실 일을 하지 않겠다. 이는 내게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내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

음란한 이야기나 행동과 함께 우리는 술이나 마약 같은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하여 죄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사람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된다. 에린 루저(Erin Lutzer)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노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술취함과 음란은 함께 한다. 성경에서 맨 처음 보는 술취함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노아는 술취해 발가벗고 그의 장막에 누워 있었다. 알콜은 언제나 사람의 도덕성을 떨어뜨린다.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다 나중에는 자제력을 잃고 평상시에는 꺼려하던 것들을 담대히 하게 된다. 근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도덕한 추행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술을 먹었지. 그리고는…’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감각한 가운데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그들의 문제에서 멀리하라. 알콜 중독자들에게 술은 마른땅에 단비와 같은 것이다.”

도움을 청하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느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라고 말했다. 주님은 즉시 그를

구해 주셨다. 그분은 언제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라.

사무엘 러터포드(Samuel Rutherford)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라”고 조언했다. 무슨 뜻인가? 존 베이어드(John L. Baird)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당신과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낮에도 드려 하나님의 고유한 뜻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 위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 큰 변화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또 분개함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한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

하를드 월디쉬(Harold Wildish)도 그의 성경 앞부분에 이와 유사한 권고를 써 붙여 두었다.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대속의 사역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삶과 일을 떠나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쉬라.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드리고 찬양하며 쉬라. 그분이 당신의 하루를 주장하도록 맡기라. 하루종일 기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계시와 입증, 가르침, 사용,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과 그리고 당신 안에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습관이 되게 하라.”

성령충만은 어떤 마음의 흥분이 아니고 거룩이다. 나날이 그저 일상적인 일과 평범한 일, 그리고 힘든 일들만 지속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격려하는 높은 산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텁니바퀴는 아주 복잡하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루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령충만에는 능력과(눅 24:49; 행 1:8), 주님을 증거함에 대한 담대함(행 4:13,29,32), 기쁨(행 13:52), 찬양(눅 1:67~75; 엡 5:19,20), 그리고 순종이 있다(엡 5:21).

이제 우리는 성결과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이 세상, 즉 두 왕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왕국의 다른 점과 또 자신이 어디에 충성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12

두 왕국(나라)

❶ 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르며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고 다른 하나는 빛 가운데 있다. 이 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 회중을 말하는 것이다(물론 교회와 왕국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해도 여기에서는 같은 것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사단과 그리스도

사단은 이 세상의 지배자로서 정치와 주요한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이 세상 임금과(요 12:31, 14:30, 16:11), 이 세상의 신(고후 4:4), 그리고 악한 자로 불린다(요일 5:19). 그는 죽이고 흡치며 멸망시키기를 꾀하는 거짓말쟁이이며 속이는 자

이다(요 10:10).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의 지배자이시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다(요 10:10). 세상에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민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6).

소속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왕국에 복종하고 있다(요일 5:19).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왕국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이 세상에 있다는 면에서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다. 시편 기자는 이들에 대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사람들”(시 17:14)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또한 그들을 사랑한다(요 15:19).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 지게 되는데(요 3:3,5) 그에 대한 상징이 바로 침례이다. 그는 아직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는 속하지 않게 된다(요 14:18, 17:11). 그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벧전 2:11)으로서 이 세상의 특성들을 취하지 않으며 하늘의 집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이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만일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요일 2:15). 그는 세상의 미움을 자청한 자이다(요 15:18,19, 17:14; 요일 3:13). 실질적인 면에서 그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거부한 자이다(롬 12:2). 그는 세상과는 적대 관계를 가지며 공존이나 평화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책망하며 또한 복음—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을 전한다 (고후 5:18~21).

세상은 굉장한 매력과 유혹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매력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것은 손해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매혹의 울타리를 넘본다. 그들은 두 세상 모두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흐려지게 된다.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찾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 우리는 곧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이 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가까이 지내기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때로 세상은 혗된 것이라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배우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세상은 보기애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 기쁨은 일시적이며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그 기쁨이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쓰라린 상처가 되는 것이다.

“주여, 저는 터진 웅덩이를 찾았나이다.
 그러나 물은 저를 실망시켰으며
 심지어 제가 그 물을 마시려 했을 때
 그 물은 저를 피하며 우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세상은 성을 미화하며 정욕과 폭력, 전쟁, 부,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권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삶을 살며,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산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무덤에서 끝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정욕이 아니라 청결을, 그리고 투쟁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한다. 그는 신뢰,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한다(롬 14:17). 그리스도인은 안목의 정욕 대신 믿음의 소원을 따라 살기 원하고, 육신의 정욕 대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세속적’의 의미

과거에는 담배나 술, 춤, 카드(화투)놀이, 그리고 영화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금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이제 그러한 금기는 “나는 술도 담배도 안하며 껌도 안 씹고 페이트도 안한다”라는 말로 하나의 조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세속적이 아나란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잘못된 동기나 영화, 그리고 생각들이다. 그래서 에르вин 루저(Erwin Lutzer)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들을 낫추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누려야 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읊탕한 것이라도 누려

야 할 즐거움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의 금기들을 잘못된 이유들을 들어 비난한다. 그들의 도덕적 양심은 지속적으로 무감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라의 특성

세상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그 자체(본성)가 썩은 정치가 있고 윤리가 마비된 상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종교계가 있고, 혼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척하는 예술, 음악, 그리고 문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손짓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들과 음란한 영화, TV가 있다.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치에 대해서 그는 주님이나 사도들이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18:36)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고 말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문제 해결은 이 세상의 정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사용하되 남용하지 말라”(고전 7:21)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였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다(딤후 2:4).

우리가 세상의 종교계를 말할 때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제외된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전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분도 이 세상의 종교계 안에 있지 않다(히 13:11~14).

세상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악은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바울이 문화의 중심지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예술의 우아함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마음 아파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지옥으로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헬리우드가 무해한 곳인가? TV가 청결을 조장하는가? 영적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영화가 있는가? 한가지 분명한 대답은 누구든 이와 같이 부도덕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자기를 먹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신을 단절(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밖에서 충분한 지렛대만 구할 수 있다면 지구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한다. 먼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는, 즉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는 지구를 옮길 수 없다.

두 가지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인 세상의 지혜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우리는 두 지혜에 대하여 아주 대조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보고 만지고 다루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	영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고후 4:18).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마음과 지능에서 지혜를 찾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시 111:10).
주와 상전이 되어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눅 22:26,27)
당시 상황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것이 진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이며(요 17:17),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목표는 많은 무리, 큰 것이 그 목표.	소수, 적지만 그 질이 강조. 남은 자(삿 7:1~7). 기드온의 군대를 보라.
자신을 위해 살고 옮은 대로 행하며 자신을 최우선에 둔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막 8:35).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빌 2:3).
성공은 유명과 평판들, 죄고를 향하여 투쟁함으로 쟁취한다.	제자도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빌 2:7).
부는 돈을 악착같이 긁어모아 이루는 것이다.	영혼의 부가 진정한 부이다. 신자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마 6:20). 그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 보화로 인한 부자이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후 5:7).
오직 결과가 말해준다.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행 5:29).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1, 23~25)고 말했다.

두 왕국의 방법

만일 두 나라의 지혜가 서로 다르다면 그 방법이나 전략도 서로 다를 것이다. 여기 그 몇 가지 대조가 있다.

세상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너를 돋는 자를 도우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도우라(눅 14:12~14).
보복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롬 12:20; 살전 5:15).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하라.	왼편 뺨을 돌려 대라(눅 6:27, 29).
욕심을 따라 분배하라.	필요를 따라 분배하라(마 20:1 ~16).
뇌물과 매수, 부정한 방법을 통 해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라.	항상 의를 행하고 타협하지 말라.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서로 협력하여 도우라(고전 12: 25).

세상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할 수 있는 한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골 3:22 ~24)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선한 간증을 갖도록 하라.
보는 것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을 하라(요 7:24).

무기

이 세상의 무기는 총과 탱크뿐만 아니라 돈과 선전, 명성, 사람들의 심리적 속임수, 그리고 거짓들도 포함된다. 신자들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믿음, 그리고 사랑이다. 이것들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고후 10:4).

세상의 영광

이제 세상의 영광 또는 영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또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세상은 리본이나 훈장, 졸업장, 메달, 트로피, 유니폼, 그리고 직함을 사용한다. 나폴레옹은 조그마한 아름다운 리본을 가지고 “이와 같은 리본으로 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가지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리본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월계수 판을 쓰기 위하여 42Km를 달린다.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릴 그 나뭇가지들을 위해서 말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영광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바울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그리

스도인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고전 9:25).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힘쓰도록 그 동기를 부여한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마 10:32, 뉘 12:8). 구세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23)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믿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한다.

“오! 세상의 영예와 그 영광이여,
 그대의 매력은 헛된 것이라.
 나는 그대보다 더 기쁘고
 참된 것을 발견했노라.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나의 축복이 있으니
 나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리”(한나 베링함).

이상적인 시민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민은 자신을 위대하다고 보는 부하고 교만한, 그리고 거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상적인 시민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펫박을 받는 자이다(마 5:3~12). 예수님이 낮고 천하고 하찮은,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

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전 1:27~29; 약 2:5).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갈 1:14).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못 박혔다(갈 6:14). 우리의 모든 영광은 바로 십자가이다. 세상은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와 무덤밖에는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거처를 삼고 안식하는 것을 금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로서
 당신께 무덤밖에 주지 않은 이 세상에서
 안식하기를 원치 않사옵나이다.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매임에서 놓고
 빛난 곳에 계신 우리의 보화이신 당신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나이다.”(제임스 텍)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날드 그레이 번하우스(Donald Gray Barnhouse)는 “우리는 세상의 문명이 저주받고 또 주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방법, 원리, 그리고 이상을 순수하게 지키면서도 세상 것과 혼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처럼, 하늘의

시민처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속성과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윤리학과에서 해부학과 교실로 옮겨가 보기로 하자.

13

죄에 대한 해부와 회개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 또는 동기이다(롬 3:23).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어기는) 모든 것이며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이다(약 4:17). 의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의지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다(요일 3:14).

죄는 우주적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 7:20).

죄는 선천적이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시 51:5).

죄는 폐지는 습성이 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인간의 모든 분야에 죄가 스며들었다(롬 3:14~18). 사람은 책에 기록된 모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약 1:13~15). 사람은 그의 생각(마음)에서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죄악의 골짜기를 헤맬 수 있다. 사람은 처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다 그것을 즐기고 나중에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

에 심각한 것이다(시 51:4).

인간이 받는 고통에서 죄의 심각성을 보며, 우리 주님의 받으신 고통과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본다.

죄는 사람을 구속한다(롬 6:15,16). 죄는 그 포로들을 정욕과 탐심, 그리고 온갖 악한 습관으로 잡아맨다.

죄는 사람을 속인다. 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건져주지 못한다. 죄는 보기에는 사랑스러울지 몰라도 그 뒤에는 추잡함이 도사리고 있다.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쉽게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용납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죄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변호한다.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위로한다.

죄는 마음을 강퍅케 한다. 우리가 처음으로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양심은 상당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소리는 적어진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양심은 전혀 반응이 없게 된다. 즉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것이다.

죄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한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창 3:12). 이브는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 이제 그의 후손들은 환경이나 부모 또는 그 동료들을 비난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말한 사고의 이유들이 있는데 다음은 그 몇

가지이다.

“보행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해서 그만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를 비켰는데 결국 치고 말았습니다.”

“길로 막 나와 잠깐 장모님을 보는 사이에 그만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내 차 앞을 쳤을 때 나는 그만 길옆으로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히 4:13).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하늘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죄는 누룩처럼 일한다. 거짓은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 한다. 사람이 부도덕한 죄를 범하면 이미 죄를 지었으니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할 수도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묵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일수록 죄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죄는 마치 눈덩이와 같다.

죄는 무죄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며 그후 시대까지 고통을 가져온다. 알콜 중독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그 자녀들에게 까지 전하며 에이즈도 피를 통하여 무죄한 자들에게 전염시킨다. 마약도 산모들의 배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죄의 영향에서 무관할 사람은 없다. 선이든 악이든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 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에 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죄의 결과로부터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죄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삶에서는 어떻게 역사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윗은 준수한 외모와 건강, 명성, 지위, 재산, 가족, 친구들 …,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왕위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장래가 아주 밝은 보장된 사람이었으며 온 세상이 그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태함에 빠져 방심하게 되었다.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궁전에 남아 호화로운 낙을 누리며 안주하였다. 만일 그가 바쁘게 일했더라면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송사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1) 시험

그는 방심하고 있는 동안 궁전 뜰을 거닐며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공상에 공상을 거듭하다 그녀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가져야만 했다. 그녀를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왕으로서 즐거움을 가져야만 하지 않는가?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한쪽에서 마음이 걸렸다. 마음에서 그의 양심은 “안돼! 안돼! 안돼! 그래서는 안돼. 그것은 죄야. 그 것은 간음이야. 그만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를 그에게 데리고 온 신하도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가장 충실한 신하 중 한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옳고 그른 것은 아주 분명했다. 가장 현명하고 합당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여인을 갖고자 하는 더 강한 정욕이 있었다. 그것이 비록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

라 할지라도 그의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했다. 정욕이 불타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행복이나 가정, 그리고 평판을 희생하기로 생각했다.

(2) 무가치한 선택

그래서 그는 무가치한 것을 선택했다. 정욕이 양심의 소리를 몰아내었다.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육체의 정욕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설득력이 있었다. 심지어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그것을 통제하기에는 미약했다. 그는 일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간증, 가정에서의 존경, 그 친구들의 존경, 그리고 홀륭한 인격의 능력을 쥐버렸다.

알렉산더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은 “그는 그 자신이 의에 목말랐던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내던져 버렸으며, 그 영혼을 흑암에 두고, 성공에 종지부를 찍었고, 남은 삶을 재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대파하는 생활을 했으며, 그의 이름과 종교를 비난하는 자들의 표적이 되게 하였다.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는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에서처럼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버렸다. 곁에서 보기에 죄는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이제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었다. 그는 부정함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다. 죄에 대한 그의 양심의 자각은 그에게 심한 아픔을 남겨 놓았다. 그는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 충성스런 신하를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 신하의 아이로 생각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또 그 여인과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윗 왕은 아무도 사실을 모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다윗이 그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약 1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상기시키셨는데 다윗은 이제갓 코뿔은 송아지 마냥 저항하였다.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감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 또는 고백하기를 거부했다. 교만인가, 사악한 완고함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결국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하셨다. 그 비유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훌취한 것이었다. 다윗은 공정한 판단을 내려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옳무였는데 왕이 거기에 빠지고 말았다. 그가 바로 그 양을 훌취한 부자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수 있어도 자신의 죄는 볼 수 없었다. 그의 부자에 대한 정죄가 곧 자신에 대한 정죄였다. 그는 할 말이 없었으며 변호할 것이 없었다.

(3) 진정한 회개

그는 통회하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샘이 터져서 솟아나왔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였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자비를 베풀소서. 저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께서기에 이에 의지하여 제가 범한 죄에 따라 저를 대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나이다. 당신의 자비는 끝이 없는 자비이기에 당신의 거룩한 법을 더럽힌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감히 간구하나이

다. 당신의 길에서 떠난 저의 죄악에서 저를 셧기시며, 표준에서 떠난 이 추악한 죄에서 저를 셧겨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법을 어긴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시인하나이다. 저는 공공연히 죄를 지었고 저의 고백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이다. 저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밤낮 저를 절러 더이상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이다. 당신께만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또한 밧세바와 그녀의 신실한 남편 우리야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주여, 그 용감한 장군에게 행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모든 죄는 무엇보다 먼저 당신에 대한 죄라는 것을 알았나이다. 당신의 법이 손상되고 의지가 경멸을 당하며 그 이름이 멸시를 당했나이다. 그래서 저도 당신 편에 서서 제 자신을 정죄하나이다. 당신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으시며 아무도 거기에서 흠을 찾을 수 없나이다. 주여,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저는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렇다고 제가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저의 어머니에게 돌리거나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싫어하고 사람 속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께로 옵니다. 저의 마음 속에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은 문둥병자들에게 청결 예식으로 우슬초와 흐르는 물을 사용하라고 하셨나이다(례 14:1~8). 주여, 저도 도덕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셧기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이다’ 제가 죄를 범한 후로 저는 친송을 잊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린지도 오래 되었나이다. 주여, 저로 하여금 다시 기쁨의 음악을 들

제 하소서. 제가 죄를 범한 이후로 저는 마치 주께서 제 뼈를 부러뜨려 불구자로 만드신 것과 같음을 느끼나이다. 이제 더이상 당신의 거룩한 잔치에 나올 수 없나이다. 주여, 저를 고쳐주사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즐거운 잔치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여, 이제 저의 죄와 심판에서 당신의 얼굴을 들이키소서. 저의 이 큰 죄악의 자국을 없애주소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저를 찌르나이다. 돌이켜볼 때 모든 문제는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나이다. 저의 생각이 부패했었고 죄를 범할 때까지 제 안에 들어온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여, 이제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샘이 깨끗해야 강물이 깨끗함을 아옵나이다. 주여, 제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를 포기하거나 당신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당신의 존전에서 쫓겨난다거나 성령을 저에게서 취해 가신다는 것은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서 당신은 성령을 거두어 가심이니이다.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나이다(삼상 16:14). 제가 그 일을 생각했어야 했나이다. 주여, 부디 그것만은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앞에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찬송을 읊었나이다. 제 영혼이 아니라 제 입에 찬송 말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말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회개함으로 나아오니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를 불들어주옵소서. 다시 말해 모든 일에 당신을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의 길로 행하게 되리이다.

“죄를 용서받은 저의 경우가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좋은 증거가 되리이다. 저도 그들에게 용서와 평강의 길을 전하겠나이다. 그들이 당신이 저에게 하신 용서에 대해 듣게 되면 그들도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리이다. 주여, 피를 흘린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 온 세상이 당신의 구원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듣게 되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우리야의 피에 대한 죄책이 저를 무겁게 누르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제가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저의 죄로 인하여 제 입이 봉함을 당하였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사 제 입을 열어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여, 저는 저의 죄사함을 위하여 의식이나 예식을 의지하지 않사옵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식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당신이 짐승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으면 당신께 가져왔으리이다. 그러나 당신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신이 제사나 제물들을 제정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시는 최선이 아니옵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 앞에 이렇게 통화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제사이옵나이다.

“주여, 이제 제 자신을 포함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저의 죄가 당신의 일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당신의 이름에 불명예를 들렸나이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당신과 함께 동행할 때에 당신은 우리의 의의 제사를 인하여 기뻐하시리이다. 당신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되리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우리가 수

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동성연애를 포함해 모든 성적인 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이므로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14

도덕적 청결

사 단이 가장 많이 승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성경이나 교회사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性)”이다. 성적 부도덕은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병기이다. 삼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절제하지 못한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후로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관계에 연루되어 파선하고 있다. 거룩의 고속도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성적 부도덕으로 인해 파선하여 죽은 시체들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욕망 또는 욕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욕이다. 이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써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용할 수도 있다. 불과물은 유익한 것이지만 통제할 수 없을 때는 큰 피해를 가져온다.

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변형될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영, 육,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을 위해 주신 좋은

법이다.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창 2:18).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의 성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결혼은 고귀한 것이며 그 침소는 깨끗한 것이다”(히 13:4). 일반적으로 결혼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일부일처, 즉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택하도록 하셨다(창 2:24; 마 19:5,6; 앤 5:22,23). 하나님은 이 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세우셨는데 다시 말해 부부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한 사람과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결혼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성결케 하셨으며(요 2:1~11),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한 그림으로 가르쳤다(엡 5:22~33).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일이다).

합법적인 성의 사용

합법적인 부부관계에서 사용하는 성은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 외의 성 사용은 자기 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때로 사람들은 결혼 예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만일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면 함께 살아도 되며 하나님은 그들을 결혼한 자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즉 결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삭이 리

브가와 결혼할 때에도 분명 예식이 있었다. 리브가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겠나이다”라고 대답 했다. 예식은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의복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하나의 언약으로 묘사하셨다(겔 16:8; 말 2:14을 보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주 분명한 예식이 있었다. 결혼은 7~14일간의 긴 잔치가 포함되어 있었다(마 22:1~14; 눅 14:8). 손님들은 예복이 준비되었다(마 22:12). 누가복음 12:36에서 우리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을 본다.

일부일처제는 언제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오고 있다(창 2:24). 성경에는 일부다처제와 다른 불합리한 결혼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잘 못된 것들을 받아들인 것으로써 한번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살전 5:22).

책임을 전가함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불륜과 혼전정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한다. 척 스윙돌(Chuck Swindoll)은 “융통성 신학”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변명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녀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그녀를 떠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러한 정욕을 주셨으며 주님은 또한 내가 이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생각보다 좀더 깊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아닙니까?”

“저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리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그렇게 얕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다면 하십시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그래도 죄가 아닙니다.”

“조금 부도덕하다 해도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조금은 스릴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록에 다음과 같은 변명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명된 사회에 사는 자들로서 이제 더이상 종세시대의 묵은 규칙들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 양심의 자유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변명들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도덕은 아직 금지되어 있으며(살전 4:3) 성적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이며(갈 6:7) “쾌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는 말은 사실이다(잠 13:15).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과 (히 13:4)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고전 6:9,10) 지옥불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계 21:8) 여전히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명(합리화)에도 불구하고 부도덕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 육적, 심리적인 손상도 피할 수 없다(롬 1:27; 고전 6:18). 의약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오늘날 성적 질병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그의 등뒤에 던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의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죄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상실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내게 돌리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혼

만일 결혼생활이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이 재미없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게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혼할 길을 찾아 그들의 권태를 쉽게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며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많아 어렵거나 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겼을 때는 서로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세상 사고가 그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성 파문

근래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한 유명한 TV 목사는 11년 전의 불륜의 관계가 드러났다. 한 예언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 했으며 신유의 은사에 대해 글도 쓰고 강의했던 한 여인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학생연합회 회장도 불륜의 관계로 임기 전에 사임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파문들에 대해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혐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해 보아야할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불륜의 관계들을 계속 덮어두는 것은 교회를 가해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와 유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의 예를 통해 우리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 거룩의 대로에서 나오된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하

나의 의문을 갖게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굳게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거룩의 대로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생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된다. 외모가 준수하고 은사가 뛰어난 자들이나 온유한 자들, 매혹적인 개성을 자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시험을 당한다. 어떤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축복인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시험을 당한다. 우리 모두 거룩의 대로에 굳게 서도록 하자.

기독 부족—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언제나 큰 위협이 된다. 죄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순간 가까이서 주를 의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말씀 부족—성경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성경의 권고와 경고, 그리고 격려에 우리 귀를 막는 것이다.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큰 소리로 우리를 경고하며 도와준다.

통제되지 않는 생각—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약 1:4,5). 마음 속에 음탕한 생각들을 오래 품어 키우는 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

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다(마 5:28). 간음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절제—고린도전서 7:5에서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위하여 서로 합의한 외에는 너무 오래 분방하지 말라고 권하였다. 사람이 절제할 수 없음을 인하여 너무 오래 분방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게 된다.

고독—고독은 때로 사람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할 때가 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이다.

과도한 친절—예수님은 “만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막 9:43). 어느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설교자는 “여자와 돈과 명예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권했다. 방심이나 하찮은 접촉도 어려운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사람들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방송설교자 한 사람도 그 손을 여인들에게서 멀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시ベ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상황에 타협함으로—근무시간 후에 여비서와 함께 오래 사무실에 있음으로, 서로 관심이 있는 상담자와 단 둘이 사무실에 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행기나 여관 또는 차에 함께 있음으로… 등,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일들이 나중에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된다.

마가렛 헤스(Margaret Hess)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남녀의 관계는 언제나 그 가운데 분명한 선을 그어라. 한 심

리학자는 그의 환자들과의 면담 스케줄을 만들 때 마지막 환자를 여자가 아닌 남자가 되도록 해서 시험을 피한다고 했다. 한 교회 지도자는 그 상담자를 책상 반대편에 앉히고 창을 가린 커튼을 젖혀놓았다. 한 의사는 여자 환자를 진찰할 때 간호사를 들어오게 하여 진찰했다. 사장과 비서는 단둘이 식사하러 가거나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도록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가정주부는 그녀의 남편이 외출 중에 있을 때 이웃의 남자와 시험이 될만한 일들은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아내는 그 남편을 이기기 위해 남편을 떠나 오랫동안 홀로 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아내가 친정에 가고 오랫동안 홀로 있는 이웃의 다른 남자를 돌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멀리 가 있는 여인에게 남자가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그녀의 필요는 오직 그녀의 남편만이 채울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케으름—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해로운 질병이다. 하루를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활동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줄 모르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며 또한 무기력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쁘게 일하여 안일로 인한 시험에서 자신들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교만—사람들의 아첨은 때로 사람을 교만 가운데 빼뜨릴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어떤 위대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이 세상의 주인 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유명—누구든 유명해지고자 하는 자는 부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사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말해 “유명”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 좋지 못하다.

C. A 코테스(Coate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성격에 비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대중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그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명을 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6번의 경우 모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유명은 참으로 해로운 것이다. 어떤이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도 필요하다.”

TV—TV를 통하여 방영되는 여러 부도덕한 성과 정욕, 그리고 음란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 그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또 그 정욕을 잡제울 수 있다. TV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 음란한 잡지나 영화, 책,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도 TV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덫—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덫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달라는 한 여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우

체국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했을까? 그는 그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잊고 혼자 그곳에 갔다. 그가 우체국 앞에 가서 그녀를 만났을 때는 곧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창녀와 만났다는 죄로(창녀와 만나 함께 여관에 가려는 것으로 알고)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에서 추방되었다. 이 경우 그에게 전혀 어떤 불순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덫에 걸려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러한 면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신약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죄들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음란이 그 중에 하나이다.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세만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사실들을 접하며 주님과 날마다 가까운 교제를 통하여 그 도덕적 실패의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할 것이다.

15 동성연애

많은 사람들은 동성연애는 삶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 한다. 소위 게이(Gay)라고 부르는 동성연애자들은 이제 꽁꽁연히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모두가 다들 그러는데 뭘!”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동성연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에 대해 그 백성들을 위한 법을 세우셨다. 동성연애는 그 성적 표현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다.

(2) 창세기 19:1~26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로 인하여 악명 높은 사람들로 알려

져 있다. “소돔” 하면 동성연애를 의미할 정도이다. 남색을 의미하는 “소도미”(sodomy)는 그 도시에서 비롯된 말이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남자(천사)를 데리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그 성에서 나오게 하고 유황불로 그 성을 사르셨다.

(3) 레위기 18:22, 20:13

모세의 율법 아래서 동성연애는 악한 것으로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4) 로마서 1:18~32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나 돌에다 우상을 새겨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욕심에 내버려두사 동성연애를 포함해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두셨다.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5) 고린도전서 6:9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동성연애자나 남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6) 디모데전서 6:9

이곳에서 남색은 음행과 살인, 유괴, 거짓맹세,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과 함께 언급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의 결과는 물론 죽음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동성연애를 악한 것으로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같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동성연애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밀하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할 것이다.

“동성연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만일 그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요 1:12; 롬 10:13).

“그리스도인도 동성연애에 빠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연약할 때 빠질 수 있는 죄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죄에 빠졌다면 그는 그 죄를 자복하고 벼림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요일 1:9).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면 이는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좋은 증거이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마 7:20)고 말씀하셨다.

동성 연애에 대한 성향과 습관

“동성에 대해 정욕을 품는 것과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사람들 중에는 동성에 대하여 원하는 마음(정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번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적으로 그러한 면에 욕구를 느끼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면서도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청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한번의 동성연애자는 영원한 동성연애자다’라는 말이 사실

인가?” 만일 그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같은 이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구원받기 전 그러한 정욕 가운데 빠져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전 6:9~11). 동성연애에 대한 마음속의 정욕에 대해 어떤 신자들은 그 일생동안 싸워야할지 모르지만 그의 힘을 그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집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동성연애에 대해 사람들을 심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맨 처음 하나님의 손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죄가 없었고 깨끗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예수님 외에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진리를 왜곡하며, 불의하고,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평계를 대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동성연애에 대한 욕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태어난 후에 갖는 것인가?” 사실은 두 가지 다닐 수도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러한 면에 약점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해서 이 책에서 말한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면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다른 면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단순히 동성연애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정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죄에 빠질 때 정죄를 받는다. 동성연애에 대한 욕구는 태어난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년도 어떤 소년에게 유혹이 되어 이러한 삶에 빠질 수도 있다.

누구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주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7:2).

동성연애자들의 길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여자들은 그들의 그 부도덕한 삶으로 인하여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옹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말했다(롬 1:27). 이는 성병과 폐렴, 암의 일종인 피부염, 그리고 에이즈 등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죄책감과 영적,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비정상적인 개성변화도 포함된다. 19세기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스카 월드(Oscar Wilde)는 동성연애에 깊이 관여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육적인 안락에 방치하였다. 최고의 극치, 새로운 쾌락, 그리고 더 깊은 쾌락을 향하여 헤매었다. 사고의 영역 안에서 온 고집이 내게 하나의 정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무관심한 가운데서 자라났다. 나는 무엇이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취했다. 나는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적은 일들이 하나의 특성이 되며 또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들로 인하여 지붕 위에서 큰소리로 통곡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이제 더이상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쾌락이 나를 주관하게 했으며 결국 비참한 치욕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

동성연애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다른 정욕들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성경적인 좋은 상담이 꼭 필요하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삶에 대한 변화의 요구 없이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모독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16

내부의 재판관: 양심

양심은 생각이나 의도, 그리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감시자이다(롬 2:15). 양심은 소년이 과자를 훔쳐먹을 때 먼저 주위를 살피게 만들며, 과속을 하다 경찰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그리고 양심은 도둑으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게 만든다. 세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겁을 먹게 한다. 양심은 세금을 자진신고할 때나 법정에 설 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성경이 양심을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잠 20:27).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거짓이나 살인,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양심도 절대적인 뜻대는 아니다

양심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기능들처럼 양심도 인간의 타락으로 상처를 입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교육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옛 속담은 적합치 않다. 양심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르침과 일깨움을 받으며 또한 이를 따라야 한다”(반 하우스).

진정한 회개는 양심이 관여된다. 존 뉴튼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양심이 이를 인정하고 가책을 느끼며 또한 절망 가운데로 나를 몰아 넣었다”고 말했다. 사울은 그 양심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행 9:5). 로버트 머레이 맥奎니는 하늘의 빛에 의해 그 양심이 일깨움을 받았을 때에 그는 무서운 두려움에 떨었다.

청결한 양심은(히 9:14)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케 함을 받은 양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아직 양심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말하기는 해도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를 깨끗케 하셨기에 이제 양심은 더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연약한 양심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 같은 그 자체가 악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전 8:7,8).

양심은 그 사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무디어 질 수 있다. 처음에 자동차에 앉으면 안전띠를 매도록 부서가 울려 운전자로 하여금 잊지 않고 안전띠를 매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묵살할수록 그 양심의 소리는 적어진다. 이는 마치 고무줄과 같아서 점점 그 탄력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는 사람의 피부가 화인 맞은 것과 같다(딤전 4:2).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감각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 (엡 4:19). 큰 죄를 범하고도 그 입을 닦으며 “나는 전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잠 30:20).

“죄에 대한 가장 큰 안전은 죄로 인한 충격을 받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더러워진 양심은 악한 행실들로 그 양심이 얼룩져 있다(딛 1:15). 만일 사람의 삶이 악하면 그 양심도 그러하다(히 10:22).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벧전 3:16; 행 24:16).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

17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다. 사람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과 인격이 결정된다. 성경 말씀에 따른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빌 4:8).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난잡한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경은 “내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한다(잠 23:7).

알프레드 깁스는 자주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평가가 당신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곧 당신이다”라고 밀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지수(指數)이다. 한 지혜로운 사람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했다(잠 4:23).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낳는 샘의 근원이다. 만일 샘물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도 통제할 수 있다.

십계명

십계명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생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

탐심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다. 하나님은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소의 사울을 회개하게 만든 계명이었다. 그는 언제나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떤 큰 죄들을 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십계명을 대할 때 그에게 있는 악한 생각이 곧 악한 행동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생각들, 즉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곧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롬 7:7~11).

역사의 방법

야고보는 마음의(정신적)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하

였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여기에 죄가 인생과 비교되었다. 먼저 잉태가 있고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자란다. 그리고는 죽는 것이다. 죄도 그렇다. 죄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잉태되어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결국 죽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으며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옛 속담은 말하고 있다.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셨다. 하루는 주님께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들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돼지고기와 토끼, 오징어, 게 등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배웠다. 물론 율법시대에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셨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훌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14~23).

당신은 사람들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로 악한 생각들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들어오는 탐욕적인 생각들은 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생각들이 악하지 않다면 거룩하다는 말인가?”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원한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악한 탐욕적인 생각은 불결한 것으로써 정죄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 암시적인 광고와 상스러운 대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마음의 공해들로 인하여 그 마음을 전혀 더럽힘이 없이 청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즉시 거절하여 쫓아버리는 것이다.

생각지도 말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악한 생각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더 강조하셨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 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1,22,27,28).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러셨을까? 이는 당신이 살인을 생각지 않으면 절대로 살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행동은 먼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 마음 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다스린다면 당신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원과 성취,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살인이 애벌레 상태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분개나 악의가 없는 곳에 살인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고 놀랍다. 마음은 마치 모든 명령을 하달하는 군대의 사령부와 같다. 마음이 손에게 필을 들어 글을 쓰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보내는 교통기관이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하는 일과 그 양을 컴퓨터로 만든다면 그 컴퓨터는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만큼 커야 하며 그렇다 해도 마음이 하는 일을 충분히 다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들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광대하고 복잡한 왕국(마음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과 같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선이나 악,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나 무가치한 것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마음의 긍정적인 면

나는 마음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헨델이 앓아서 그 마음에 “메시야”곡을 생각하여 작곡한 것을 생각해본다. 그 음악은 아주 감동적이어서 나는 성경에서 메시야에 대해 읽을 때마다 그 음악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늘나라에서 혹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는 아이삭 윗츠의 위대한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계에 내놓은 찬송은 이것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찬송은 일평생에 하나만 써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밀턴이 절제된 마음으로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실낙원”을 쓴 것을 생각한다. 그의 책 한 장 한 장이 부한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미켈란젤로와 그의 그림과 조각들을 생각한다. 그의 예술의 아름다움과 폭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넓다. 그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의 생각은 그의 그림과 조각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나는 설교의 대가 찰스 스필樵을 생각한다. 나는 피어슨이 그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그의 마음은 최고를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한 것을 생각한다. 나는 그의 설교문들을 읽으며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들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달을 탐사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위성을 띄웠던 것을 기억한다. 그 기술과 야망, 그리고 그 정밀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악에 대한 가능성

우리는 또한 마음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무자비한 폭군들의 혹독한 감옥과 수용소, 개스실, 그리고 가마솥을 생각하며 또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자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볼테어나 톰페인, 그리고 로버트 인저솔 같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데 사용한 자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가지론과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늘날 춘화를 디자인하고 프린트해서 배포하는 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그 좋은 머리와 마음을 이러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도덕을 파는 자들, 도덕적 환경

을 더럽히는 자들과 조장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착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면에서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일주일동안 우리가 했던 생각들을 플랭카드에 써서 들고 한 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깊은 죄악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온갖 부도덕한 짓들을 생각하며 은밀히 이를 즐기거나 금지된 것들을 즐길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을 하다 잡혔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동일하게 음탕한 탐욕을 품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어디든 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습관화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오직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1988년도에 TV를 통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의 불륜의 관계가 드러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란서적에 빠져왔다고 말했다. 오늘날도 은밀한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그러한 죄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안에서 어떤 젊은 군인 옆에 앉게 되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군인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잡지를 넘겨주었다. 그가 그 잡

지를 보았을 때 그것은 아주 음란한 것이었다. 그는 점잖게 잡지를 넘겨주고는 조그만 쪽복음서를 읽어보라고 주었다. 그때 그 군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저를‘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온갖 죄악된 일들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그 성적인 죄로부터 견침을 받기를 원하면 서도 계속 음란한 잡지들을 보았다.

“악한 생각은 자동차 실린더의 안과 같아서 시험의 불꽃이 튀기만 하면 폭발하고 만다. 당신은 악한 생각을 죽일 수 있다.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 육체의 은밀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꽂피게 놔두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생각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며 순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

문제는 이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야 한다. 생각을 통제해야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불신자는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부도덕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몇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문제를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가지고 가라.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간구가 알맞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이 말씀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한 간구이다. 그의 죄는 통제되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둘째,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라.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주님 앞에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5에 이것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이론을 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노예 마냥 그리스도의 판결에 순종하도록 사로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증을 받지 못한 모든 부도덕한 생각들을 죄로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 길을 가든지 차 안에서 책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악한 생각들에 대해 “주님, 이것은 죄입니다. 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케 해주십시오. 어린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쫓아야 한다. 자비의 약속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백하고 버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이는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빌립

보서 4:8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위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죄와 부패는 그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어떤이들은 이것을 “새로운 애정으로 인한 배제의 능력”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시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고후 3:18).

일반상식도 우리가 사고에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읽는 것이나 보는 것, 그리고 사귀는 사람들에 대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음란한 책이나 잡지, 영화, 그리고 대부분의 TV 쇼들도 마음에 부패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 텁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바빠야 한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면서 안일하게 놀고 있을 때에 온다. 그리스도를 위해 지칠줄 모르는 삶은 많은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보다 협된 생각이나 부도덕한 생각들로 인한 씨름을 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잡언 16:3이 말하고 있는 것일 게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생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 당신의 생각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살피소서.
마음속의 은밀한 곳과
주장하는 동기,
영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 속의 작은 방을 살피소서.”

18

목상

옳은 목상

나 는 지금까지 거룩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지 않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경건과 말씀목상은 서로 관계가 있다.

목상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덕이 되는 주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상은 주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것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정신적 훈련을 말한다. 우리는 목적없이 하찮은 것에 우리 마음이 방황하도록 방치해두는 대신 유익한 것을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 위치에서 마음을 방치하는 대신 은혜와 진리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목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되새김질과 같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는 이미 먹은 음식이지만 다시 꺼내어 이를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소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감탄스럽다. 이와 같이 신자들도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다시 깊이 목상한다. 이는 삶의 모든 부분에 만족과 기쁨을 가

져다주는 활력소가 된다.

잘못된 목상

성경적인 목상을 다른 동방종교의 명상이나 불가해한 목상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이교도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있고 사람도 목상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다는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고 영감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계시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을 위협이 많다. 예수님은 귀신들렸다가 나온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나 집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였다(마 12:43~45).

그리스도인들의 목상은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만한 것, 칭찬할만한 것, 그리고 덕이 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빌 4:8). 목상은 영적인 부와 성공에 보증이 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목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가 형통하리라.”

여기 목상의 목적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을 위한 것임에 주의하라. “목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목상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에 달려 있으며 이는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좋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묵상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나타내시는데(시 25:14) 그것은 어떤 교리가 아닌 인도나 격려, 위로 또는 교정일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넘어 다른 진리를 나타내시지 않는다.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다(유 3절).

묵상은 여행하는 자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묵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 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다(시 19:14).

그리고 묵상은 그리스도를 닮게 해준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 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고후 3:18).

묵상의 방법

묵상의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맞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본다. 각자가 자기의 환경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화나 TV, 라디오, 자동차 소리 등이 방해되지 않는 어떤 조용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삭은 저녁 무렵 들에서 조용히 묵상할 곳을 찾았다(창 24:63). 아니면 낮이나 밤중에 한 시간을 택할 수도 있다. 다윗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시 63:6). 메모지를 가지고 앉아 해야할 일과 전화해야 할 곳, 또는 그 외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어서 한쪽에 두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묵상에 전념한다.

묵상할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시편 기자는 밤에 문지기로

보초를 서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을 묵상하였다(시 119:148). 시편 1편에서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시 1:2, 119:78).

청교도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데 보냈으며 이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공급은 묵상을 위한 풍부한 자원이 되고 있다(시 143:5). 그리고 구속의 놀라운 역사도 묵상을 위한 좋은 자료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것을 묵상하라고 말했다(딤전 4:15).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성경구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으며 이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각 단어와 구절을 묵상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를 생각해보자(갈 2:20).

“하나님의 아들”—이를 생각해보라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생명의 주요 영광의 주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를 불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사”—그분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회생적이고, 비할 데 없는, 그리고 편견이 없는 사랑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13:4~8에 말하고 있는 사랑을 묵상해보라.

“나를”—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라. 죄인들, 경건치 못하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자들, 그리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다.

“자기 몸을 버리신”—사랑은 언제나 준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분 자신을 주

셨다. 그분은 돈이나 다른 물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셨다. 이는 그분의 피와 생명,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하셨다.

“나를 위하여”—놀라운 일이다. 전혀 무가치한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이같은 사랑에 나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아이삭 윗츠의 말에 나도 동감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성경지식이 짧은 초신자에게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 속에서 재현해보며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27,28에서 마태의 부름에 대해 읽어볼 수 있다. 마태가 세금을 거두도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다. 마태는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발견했을까?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 라고는 “나를 따르라”는 것뿐이었다. 마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했던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때 그 일들을 재현해보는 것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힌두교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건강이나 성공, 명성 또는 기쁨 등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

고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W. E. 쟁스터는 “성실한 학생들은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오고 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여 자기 것을 만드는 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귀한 상상력 사용은 장래를 위해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주님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재현시키는 것이며 주님의 삶의 현장에 자신도 함께 있는 것처럼 포함시키는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곳에 자기도 함께 서는 것이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이다. 유용한 상상력 사용은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오늘날의 삶으로 생생하게 재현해 내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그 속에 들어가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피상적으로 성경에 접근해 그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해 피상적일 수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분주한 자의 고갈

묵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바쁜 삶이다. 우리는 바쁜 삶으로 인한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삼키고 있다. 가정과 집안의 일들이 우리를 얹누르고 있다. 집을 사고, 차를 관리하며, 음식과 옷을 준비하고, 보험, 교육 등 우리를 잡아매는 것들이 많다. 소위 전임 사역자들도 찰리가 말한 것처럼 정신 못차리게 바쁜 스케줄에 매여있다. 말씀 준비와 제자 훈련, 상담, 그리고 도움을 원하는 수많은 전화들이 그

들로 주의 상 앞에 앉을 시간이 없게 만든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라고 외친다. 우리는 일벌레들이 되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세속적인 것들을 사서 집에다 쌓는데 바쁘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것 때문에 평계할 수 없다. 바쁜 사람들도 묵상할 수 있다. 이는 시간관리의 문제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자투리 시간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면 그는 정말 바쁜 사람이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서둘러 그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오직 호기심만 가지고 겉만 훑어보는 자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영적 방랑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고 그분의 앞까지 산을 올라온 자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빛났던 모세의 얼굴은 단 한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분 앞에 있음으로 되어진 것이었다.”

하늘로부터의 직통선

우리는 앞에서 묵상이 때로 사람들을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때로 신앙이 좋지 않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비춰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주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세 가지 예로 이 장을 마칠까 한다.

쉐퍼드 자매는 그의 많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그녀가 나가는 교회의 목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무시했다. 옆 도시에 살고 있는 그녀의 병든 동생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 밤 그 동생은 이사야 49장을 묵상하면서 그의 누이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 소식은 49:25이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후 몇 년 동안 그녀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다.

알프레드는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그의 친구는 그곳에서 수천 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나이 많은 알프레드가 그의 딸에게 “내가 알렉스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지 못한지가 3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했다. 얼마 후 편지가 왔는데 알렉스가 3개월 전에 죽었다는 편지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사무실에 앉아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나이 많은 알렌 스미스였다. 그는 “주님께서 너를 자꾸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놀랐다. 알렌은 우연히 안 것이었다. 인간적으로 말해 그가 젊은 형제의 고통을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그가 그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무르도 맥클라우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그의 가는 일에 주님을 동행자로 알고 있는 자들 중에는 그분의 가까운 사랑과 돌봄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타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깊은 영적 체험들 중에는 때로 세상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19

혀를 길들임

그 리스도인들의 혀가 곧 그 인격의 척도라는 것에 대해 그 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다(마 12:34). 사람의 언어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 그는 혀가 작은 것이지만 이에서 선과 악이 나올 수 있으며, 사람이 모든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연의 다른 것들과는 달리 혀는 단 것과 쓴 것, 또는 축복과 저주 등 전혀 다른 것을 낼 수 있다(약 3:1~12).

비록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카로운 혀를 은혜롭게, 비판적인 혀를 덕스러운 혀로 만드실 수 있다. 우리의 언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진실이어야 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엡 4:25).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는 악의 없는 거짓이나 가벼운 거짓말, 과장, 아첨, 그리고 약속 파기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보고도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비서는 또한 사장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면 없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반갑지 않은 손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이 정직하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 스텐리 존스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 거짓을 늘 덮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면 그때그때 진실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꼭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 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했다.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엡 4:29). 여기에 “더러운”이라 말은 가치 없는,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무가치한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녹음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고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난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모인 곳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재생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셨다(마 12:36). 그러므로 우

리의 삶에서 무익한 재잘거림은 죄로 알고 벼려야할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다시 밀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아이언사이드는 언제나 사람들의 대화를 덕이 되는 주제들로 인도했다. 그는 때로 “당신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는 문제가 되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른 사람이 이를 모르면 그는 자상하게 “당신은 이 구절이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잊을 수 없는 감명적인 것들이었다.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약간의 혐담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는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군”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다 듣지 못한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지만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선물이다.

죽어 가는 성도 옆에서 한 경건한 장로는 아가서 8:5을 인용

하였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시편 30:5로 위로 한 목자도 있다.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실망한 목자에게 한 자매는 이사야서 49:4을 편지 끝에 써서 격려하였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되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라.”

알렉산더 화이터 박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안에서 변호사가 “이 늙은 죄인에게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자기가 북상했던 말씀을 인용하였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미가 7:18). 변호사는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러한 말들은 때에 합당한 말들이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이다(잠 25:11).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 15:23).

은혜로워야 한다

우리의 말은 때에 맞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은혜로워야 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골 4:6).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놀랐다(눅 4:22). 유대인으로서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구하셨다는 것이(요 4:7) 바로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요 8:11)라고 말씀

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은혜로움은 그 안에 날카로움과 빙정, 그리고 가시돋친 야유가 없다. 아스터 여인은 “윔스턴 씨, 만일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면 나는 당신 커피 잔에 독약을 넣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주머니, 내가 만일 당신의 남편이었다면 나는 그 커피를 마셨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극히 재미있는 말이지만 은혜스럽지는 못한 말이다. 우리의 말은 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아야 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골 4:6).

“내게 물좀 달라”하신 주님께서 또한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요 4:16).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즉 말씀에 맛이 있었다. 소금은 또한 부패를 막는 일을 한다. 그리고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킨다. 우리의 언어도 도덕의 표준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순결해야 한다

성도들의 언어는 물론 순결해야 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들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3,4). 죄와 부도덕에 대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에 대해 우리나라 듣는 자들은 이를 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더이상 우리의 마음에 충격으

로 와 닿지 않는다. 성경도 때로 흉악한 죄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죄를 가볍게 보거나 묵과하지 않고 강하게 혐오하고 있다.

맹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언어는 맹세로 확정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네 머리로도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죽아나느니라”(마 5:34~37).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약 5:12).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직하여 맹세로 자기의 말을 확고히 해야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맹세는 전혀 소용이 없다. 좋은 사람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어차피 그의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한 것과 같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과 외설적인 말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찮은 것, 금지된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 같은 것은 어떤가?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무익한 부르짖음, 즉 “오 하나님, 이럴 수가”라든지 “오 하나님 맙소사”라든지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욕하는 것들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전에 서서 맹세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심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은 “내가 너로 살

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이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으로서 요구한 것에 대해 맹세로 답하셔야 했다(레 5:1). 그래서 주님은 이에 답하셨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만일 아직도 법적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 결림이 된다면 확인이나 확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이 없이 질문에 응하거나 증거한다는 뜻이다.

경건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가볍게 밀하거나 무례히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농담해서는 안된다. 즉 성경말씀의 내용을 떠나 의미없이 농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깨끗하고 유익한 농담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너무 헤樊 농담은 그 사람으로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때로 성령님은 흥미있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집회(모임)로 인해 근심하신다. 엄숙한 복음이 때로는 영접을 위한 하나님의 일화로 비쳐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빈정대는 말이나 거만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의 대화에 억지로 끼여드는 것이나 농담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높이거나 영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간단명료해야 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 다시 말해 말을 많이 할수록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출입으로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전 5:2).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맹세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에도 좋은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그는 모든 대화를 혼자 독점하며 듣는 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게 한다. 다음의 간결한 글을 인용함으로 결론을 내릴까 한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합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혀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그 혀를 통제하여 대화를 혼자 독점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다 말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이나 절반만이 사실인 말, 악의 있는 말, 빈정대는 말, 조롱, 부정한 말 또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간종이나 고백 또는 격려의 말을 하는데 그 혀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유스럽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혀를 훈련시키며 그 안에 있는 교만의 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혀는 생각을 따라야지 앞장서서는 안된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적은 자보다 회개할 것이 많다. 말하는 자는 심지만 듣는 자는 거둔다.

20

우리의 험담을 용서하소서

몇 년 전에 에틀란타 저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죽음보다 무서운 곡사포이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기며 가족과 마음을 부서뜨리고 삶을 파선하게 만든다. 나는 바람을 타고 돌아다닌다.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만한 의인도 없으며 겁을 줄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다. 나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으며 공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도 없다. 나에게 희생된 자들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으며 그 중에는 무고한 자들도 있다. 나는 절대로 잊는 일이 없으며 용서하는 일 또한 별로 없다. 내 이름은 험담이다.”

아마도 야고보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특별히 험담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험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여 있어 그러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험담이란 무엇인가? 윌리암 맥샬은 험담을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는 예술”이라고 말했다. 빌 고드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 또는 해결책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

는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험담을 정의하자면 “그곳에 없는 사람의 명예나 품격 또는 가치를 손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험담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해 불친절하거나 손상케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전면에서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비난하는 것이다. 이는 그 성격이 하나의 암살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레 19:16).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잠 11:13, 20:19도 보라).

“폐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잠 16:2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하느니라”(잠 18:8).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잠 26: 20).

바울은 로마서에서 험담(수군수군 하는 자)을 살인자들,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과 함께 언급하였다.

내가 말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는 때로 험담을 기도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꾸며서 말할 때가 있다. “이거 기도해달라고 한 이야기인데… 너 이것 알고 있니?” 또 은밀히 말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두 여인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길순이가 내게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길순이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을 이야기 했다며?”

“길순이는 왜 그러냐? 내가 말했다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길순이가 내게 말했다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삶의 계절’이라는 책에서 찰스 스원들은 또 다른 형태의 험담인 소문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 다루었다. 다음은 그가 말한 것이다.

“소문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작고 호기심이 많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이다. 그들은 비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다니는 것과, 미묘한 문제를 제기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 것에 기쁨을 얻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오직 불확실한 것에 근거하여 위로를 얻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러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라고 말함으로 소문을 만든 사람을 감추려 한다.

‘당신은 그 어느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에 있다는데 들어보았어요?’

‘그 어느 사람이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대요… 그 아내가 아마 바람을 피웠나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 부모가 엄청난 부자래요.’

‘아무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집 아들이 마약 복용자래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켰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들이 결혼할거래요.’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알콜 중독자라던데요?’
 ‘그 여자는 음탕한 여자라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권모와 솔수로 그렇게 출세하게 되었다고 소문이다 퍼져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네요.”

우리는 소문이나 혐담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얼마나 과장되어 가는지 잘 알고 있다. 각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점점 가미시켜 나중에는 원래의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가 된다.

바울도 사람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어떤이들은 바울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딤전 1:19,20), 부겔로와 허모게네(딤후 1:15),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요한도 디오드레베에 대해 말했다.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징계나 바로잡는 일이 필요할 때 어떤 성도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혐담과는 다르다. 혐담을 다루는 데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단계가 있다.

첫째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1에서 이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둘째 협담을 하는 자에게 “당신이 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라. 그러면 “안되지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끝장이에요”라고 말할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하는 협담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좀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협담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청중을 귀머거리로 만들면 협담하는 자를 병어리로 만들 수 있다”(윌리암 마샬).

터어키의 속담에 “당신에게 와서 남을 협담하는 자는 곧 당신을 협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21

기질 측정

교 회의 집회 때였는데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격노로 인해 얼굴은 검붉어 있었고 절새 없이 옥을 펴부으며 두 손을 휘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혈되고 턱이 떨리며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큰소리로 “내가 가는 길에 주님도 함께 가십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질의 사람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리라고 믿는 사람도 없었다.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주일날 아침이다. 가족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늑장부리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는 부엌일로 어려워하고 있어 집안이 온통 소란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 그들은 곧 순진한 웃음과 평강으로 감싸고 교회의 의자에 고스란히 앉아 있을 것이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이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선물들을 샀다. 기쁨의 순간이다. 신경이 곤두서고 화가 발동하며 조그만 일에 불똥이 튀어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삶은 기질을 시험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싫고 귀찮은 것들

로 가득차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새 차를 못으로 그어 놓았고, 비행기가 제 때에 안 온다. 오늘따라 조수가 유난히 곱뜨고, 비눗물을 무릎에다 쏟았다. 전화벨이 새벽 3시에 울려 받아보니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화기를 놓자 마자 다시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 아이가 값비싼 물건을 깨뜨리며, 개가 일년 내내 지어놓은 농사를 망가뜨려 놓는다.

그리스도인의 급한 기질(분개)만큼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헤려놓는 것도 별로 없다. 어느 상황에서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선포하는 것도 없다. 성경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고 말한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혹자는 성경도 에베소서 4:26에서 화를 내라고 명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때 화를 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에 화를 내셨다(마 21:13).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다루어질 때 화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양무리를 위하여 사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의분(義憤)이라 할지라고 사악한 분개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분개는 브레이크가 없는 화이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

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것이 다. “화를 내라”는 계명은 하나이지만 “오래 참고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은 수 없이 많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엡 4:31,3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갈 5:2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엡 4:2).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골 1:11).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잠 14:17).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찰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 14:29).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 15:18).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느니라”(잠 29:22).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 19:11).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잠 29:11).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나?”고 물으셨다. 우리가 화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줄리어스 가이살과 같이 하자. 그는 화를 내도록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나서 대답을 했다.

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친구가 불같은 그의 성격과 화내는 것에 대해 충고를 했다. 그러자 그는 “내가 화내는 것은 아주 잠시 뿐이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보게, 지진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그 피해가 아주 크다네”라고 말했다.

22

무엇을 입을까?

“**우** 리가 입는 옷이 거룩과 연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거룩은 내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만 보시지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듣기에는 옳은 이야기인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때로는 속 사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모두에 다 관심을 두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사 3:18~24).

하나님은 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는가?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외모와 치장은 그들의 교만과

허황에 대한 전시였다.

옷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장의 주인도 되시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의 의복은 아담하고 사려 깊은 것이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딤전 2:9). 여기에서의 “아담”은 좀 다른 의미이겠으나 점잖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담한 옷차림은 육체의 과감한 노출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옷차림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자기파시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에게 끌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요 3:30; 골 1:18).

루셀 하우던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자신의 주머니나 채우고 곁이나 꾸미며 그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하나는 세상의 최신 유행을 따라 다녀서는 안되고 다른 하나는 시대에 너무 뒤진 것이나 초라한 것을 입어서는 안된다. 하우던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그는 “하나님은 초라함이나 단정치 못한 복장을 명하시지 않는다. 단정치 못한 사람이나 복장이 신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의 품이 성령의 전이라면 그에 맞는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는 복장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옛날의 속담이 지금도 옳은 것이 있다. “유행의 첨단이나 끝에는 서지 말라.” 물론 그리스도인은 오직 아담한 옷들을 구해야 한다. 수많은 곳에서 도

움을 필요로 하는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백화점의 의복
진열대처럼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너무 비싼 옷은 사지 말아야 한다. “…금
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딤전 2:9).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
고”(벧전 3:3).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나 가장 싼 것만 사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값과 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가장 싼 신발
을 신고 다니다 빨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간다면 빨에 잘 맞는¹
좋은 신발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
다.

우리의 복장은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더럽고 초라한 의복
은 우리 주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단
정치 못함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복장은 남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2:5이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
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자 말 것이라. 이같
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의 복장을 하고 남자가 여
자, 여자가 남자의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머리나 복장에 있어 남녀의 구별을 없애려는
남녀평등 운동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남녀의 구별을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의 복장은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주님
을 대변하는(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곳
의 문화, 그리고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의 복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키에르케고

르는 우리에게 서커스 텐트에 불이 나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시내에 가서 외친 서커스 어릿광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시민들은 그의 외침을 듣고 농담과 장난으로 여겼다. 어릿광대에게 기대한 것은 그저 하나의 농담이나 장난이었다. 그의 복장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시내는 불타고 말았다.”

속 사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이다. 골로새서 3:12~14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웃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9,10을 보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 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거룩의 미로 주를 경배하라.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의 옷, 겸손의 향으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은 주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라.”

23

진리를 말함

거 짓은 모두 나쁜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다.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에서는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엡 4:25).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요 8:44).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된다.

데니스 디한은 “부정직은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약속하고, 책임을 져야할 일에는 침묵하며, 실수로 물건을 가져온다(부정직은 실수라는 평계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부정직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진리로 변장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들의 잘못을 가린다”라고 밀했다.

성경에는 거짓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한번도 옳은 것으로 말씀한 적은 없다.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 거짓 말을 하고(창 12:10~20, 20:2) 이삭이 리브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창 26:7).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현신에 대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행 5:1~11).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을 다 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히브리 예인들은 건강하여 산파들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낳는다고 히브리 산파들은 말했다(출 1:19).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로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은(출 5:3) 그가 작은 요구를 허락지 않으면 큰 요구(영구히 떠나는 것)도 허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에훗은 하나님께로부터 예글론왕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밝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죽음의 메시지였다(삿 3:12~30).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일 사울이 물어보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하라고 하셨다(삼상 16:1~3).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다.

때로 사람들은 좋은 일을 위해, 즉 좋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고 한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괴변으로서 성경의 정죄를 받고 있다(롬 3:8). 양심에 대해 가장 곤란한 문제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히틀러의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이다. 독일군이 집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 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유대인이 집안에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뻔뻔스런 거짓말이 된다. 그렇지만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는 곧 그들의 집안에 있는 유대인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이는 “사실대로 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할 것이

다.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말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도 아닌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악한 세상에서는 두 가지 악 중에서 그래도 더 가벼운 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악을 범하는 것보다는 작은 악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오직 다른 사람의 생명이 관여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또 혹자는 사도행전 5:29을 인용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용하시리라”(잠 24:11,12)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어떤 행동은 그 자체가 선하지는 않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좋은 것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체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이를 칭찬하셨다(약 2: 21).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 것은 사실 자기 민족을 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다(약 2:22). 이러한 일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악이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행히도 우리 중 대부분은 위에서 밀한 일들을 일생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하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데니스의 한 말을 다시 인용한다.

“거짓은 양심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며 관계들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이 나쁜 것은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4

도덕성에 대한 딜레마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다루는데 있어 윤리, 즉 도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다루지 않고는 온전한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회에는 많은 시험이 있으며 속이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과 압박이 있다. 특별히 돈이 관계된 일은 더욱 시험이 된다. 그래서 볼테어는 “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된다”라고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볼테어의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업가는 그의 사업 철학에 대해 “사업은 병풍과 같아서 굴곡이 있을 때 서지 똑바로 펴면 넘어진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따라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만일 사실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윤리에 대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을 속이며, 지출에 대한 기록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선전을 하고, 뇌물을 주며, 보복하고, 임금을 떼어먹고, 무게와 양을 속이고, 불량품을 소개하고, 잔고가 없는데도 수표를 쓰며,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파산을 선고한다.

윤리에 어긋나는 또 다른 것들은 다음과 같다. 표절과, 필요 한 물건이나 연장을 직장에서 집어오고, 약속한 시간을 다 채 우지 아니하며, 직장에서 일할 시간에 전도하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며, 약속시간을 안 지킨다.

그리스도인 변호사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일도 법정에서 무죄하다고 변호할 수 있는가? 항공사를 운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손님들에게 술을 줄 수 있는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업자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물건납품을 보장해주는 것은 어떤가? 선교사가 선교하는 나라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수주일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뇌물을 주는 것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이 시험 전에 시험지를 미리 보는 것은 어떤가? 인체에 나쁜 요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맥주회사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받아도 되는가?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치료받는 것은 가능한가?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무자료 가게에 가서 사면 불법이지만 세금을 안내도 된다. 사야하겠는가?

큰 대가를 요하는 정직 그리고 부정직

여기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구청의 위생검열관이 식당을 검열한 다음 개선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스레인지 교환, 고기 절단기 교환, 조리대 교환. 이것들을 다 바꾸려면 수백만원이나 들어간다. 그런데 검열관이 10만원만 주면 봐주겠다고 한다. 그때에 만일 식당주인이 거부하면 검열관은 언제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식당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타코마의 다리가 완공되었을 때에 한 보험회사 직원은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그 다리가 아주 견고하여 다리보험가입을 인하여 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어느날 강풍이 불어 다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 결국 다리가 파괴되고 말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잘 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더욱 어렵다. 그 대가가 얼마나든 옳은 것을 한 사람들의 좋은 예가 있다.

아담 클락은 옷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비단을 팔 때에는 옷감을 늘여 재라고 했다. 그는 주인에게 “주인님, 비단을 늘일 수 있어도 제 양심은 늘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주석을 쓰는데 그를 사용하셨다.

또 다른 가게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주인 몰래 물건을 더 달라고 하였다. “주인이 안보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점원은 “제 주인은 항상 저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새 직장에서 덕은 일주일 내내 기술자를 따라다니며 일을 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기술자는 하루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의 고객들을 위해 일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때로는 하루 7시간 때로는 7시간 반씩 일을 할 때도 기술자는 8시간씩 일한 것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나 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자기의 목이 달려 있기는 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일한 시간만 기록하였다. 기술자는 덕에 대해 화를 냈지만 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대로 했다. 나중에 덕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가 일했다.

하롤드가 슈퍼마켓에 감자칩을 배달하는 일을 했을 때 사장은 그에게 슈퍼마켓에 배달 가거든 가서 다른 회사의 감자칩

봉지를 편으로 찔러 구멍을 내고 오라고 시켰다. 감자칩 봉지에 습기가 들어가면 내용물이 못쓰게 된다. 하를드는 거절했지만 해고되지 않았다. 때로 주인들은 정직한 점원을 계속 데리고 있기를 원한다.

밥은 웃가게에서 일했다.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밀한 주인이 남자 양복을 모두 할인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주인은 밥에게 평상시에는 10만원씩 팔던 양복에 모두 20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할인가로 15만원짜리의 가격표를 붙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함으로 인하여 밥은 해고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삼상 2:30). 바른길을 가는 데는 많은 대가가 지불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25

주여, 저를 부서지게 하소서

부 흥의 불길이 루안다(Ruanda)를 휩쓸 때 그곳에 나타난 부흥의 두드러진 현상들 중에 하나는 신자들의 부서진 심령이었다.

케빈 베이커 목사는 영국에 있는 그의 교단으로부터 목회자 양육을 위해 파송되었다. 그는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었다. 그는 학생들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 하며 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중에는 아주 소수의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발로클”이라는 그룹으로 불리웠다. 그들은 매일 아침 4시에 만나기로 했다. 케빈은 그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욕하였다. 나중에 그는 몇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 회중은 대부분이 무식한 본토인들이었다. 하루는 케빈이 한 지도자를 불러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 본토인 목회자는 그 앞에 겸손히 앉아서 그의 말과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당신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목사이며 선교사인 케빈은 더욱 화를 내었다. 어떻든 거듭난 자들은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은 케빈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는

그 자신이 진정한 믿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독에게 찾아가 자기가 배웠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진리와는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변화되었다. 감독은 케빈의 말에 깊이 실망하였다. 감독은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며 “오 케빈, 이제 당신은 절대로 감독이 될 수 없을 것이요”라고 아깝고 한탄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케빈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말했다.

부서짐을 위한 짐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케빈은 거듭난 자들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짐을 느끼게 되었다. 유명한 교단의 교구장으로서 흑인 학생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인가!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해보았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다. 그는 사과하러 가야겠다고 결정하기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마음으로 차에 올라 그 곳을 향해 가면서 사과의 말을 되풀이해 보았다. 그가 그 지도자의 집앞에 도착했을 때 지도자가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때가 케빈이 처음으로 흑인을 포옹해본 때였다. 전에는 전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구원받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케빈에게 4시의 기도집회에 참석해달라고 권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성직자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들은 “다음

주에 한번 오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더 변명할 수 없어서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다.

그는 기도집회에 참석하면서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영적 흥분을 맛보기 시작했다. 신학교 학장은 그의 교수 중에 한 사람이 학생들과 새벽 4시에 만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신학교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케빈 베이커 목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오전 7시 전에는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계속 새벽 4시에 기도집회를 가졌다. 그로 인해 그들은 졸업 바로 몇 주전에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분개하지 않고 부서진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빈은 계속 감독에 대해 분개함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케빈을 찾아가 감독에 대해 분개함을 품은 것에 대해 고백하라고 권했다. 케빈은 곧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용서함으로 계속 그의 삶에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

마음을 침

거룩의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요소는 아마 이 부서짐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부서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킨 사람을 말한다. 그는 어려운 환경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댄다.

스텐리 존스는 “다른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그 사람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과 당신의 뺨을 때릴

때 담대하게 그에게 다른편 뺨을 돌려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죄내감은 사라지고 당신의 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개함을 없애므로 당신의 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은 뺨을 치는 자의 발아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항상 부서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주 아름다운 특성이다. 이는 복수하고자 하는 충동과 자기 변호 또는 불평에 대한 충동을 막는다. 하나님은 부서진 그릇(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위해 빛을 발하는 등잔
그것은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라
부서져서 부드러운 흙으로 빚어진다.”

하루는 알렉산더 화이테 박사의 사무실에 그의 교인 한 사람이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그곳을 방문한 어떤 목사가 공적으로 화이테 박사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순간 크게 분개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그 사람에게 동일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몇 마디로 자기를 비난한 그 사람에 대한 분개를 표현하였다. 교인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예요. 그는 심지어 당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잠시 비틀거리며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잠시 나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부서짐이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나이 많고 존경받는 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방문

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내가 교장으로 있는 성경학교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속에서 분개가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에 대해 “세상에 못생겨도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감정이 폭발해 두 사람에게 나의 분개를 퍼부었다.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의를 위해 용감하게 변호한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그 후 몇 개월 후에 나는 아이오아주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일깨우셨다. 마치 그 분이 내게 “맥도날드,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기 위해 가는데 너는 그때 나를 사랑하는 두 종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니? 너는 그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잖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야했다.

부서짐은 관계를 굳게 한다

사과 편지를 씀으로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점이 되었다. 그들도 내게 편지를 써서 사과했고 성경학교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노라고 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다. 교만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부서짐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당신은 내가 그 정도면 이제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느날 아침 내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전화는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영국의 한 목회자였다. 나는 그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견해의 주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 도중에 결국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나는 극히 싫은 표현으로 그에게 나의 감정을 전했다. 아마 그날 아침 전화선이 뜨거웠을 것이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날 아침 장례식을 위한 말씀 준비는 성실히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에 나는 런던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나는 원하지 않은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목회자가 살고 있는 거리 가까이를 걷고 있었는데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마치 “빌 맥도널드, 너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에 네가 한 말의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러나 주님 저는 제가 옳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위해 변호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내 마음에 “지금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공중전화 박스로 나가서 그가 집에 없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는 집에 있었다. 그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내가 전화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내 마음에 교만과 자존심을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짓밟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날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후 나는 그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어떤이들은 “저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이 있다.

부서짐의 단계

먼저 기도하라. “주여 저를 부서지게 해주소서.” 당신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변화를 당신 안에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대가를 생각하라. 부서짐의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둘째로 당신의 지난날을 돌아 보라.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가 보라. 사과해야 할 친절하지 못한 말은 없는지,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행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

다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경험을 자유스럽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서짐으로 얻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상한 것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신다.

벤스 하베너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흙이 필요. 하며 비를 위해서는 부서진 구름, 그리고 생물의 힘을 위해 부서진 비가 필요하다. 향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어져야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 야곱은 한쪽 다리를 절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나서 더 능력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26 물질남용을 피하라

스티브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사업을 하 는 사람이었는데 친구 집에서 코카인을 처음 맛보게 되 었다. 그로 인해 그는 곧 마약에 중독되어 환각을 쫓는 자가 되 었다. 그의 마약중독은 그의 집을 파산시켰고 결국 부인과 이 혼하게 되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의 이야기는 가정파탄과 파산, 그리고 이혼으로 끝을 맺었다. 그를 가까이했던 친구들마저도 그를 떠나가버리고 말았다. 마약에 패락이 있 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성경도 세상이 기쁨을 주 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 있는 죄악의 낙”이 라고 말한다(히 11:25). 그것도 낙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낙이 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대가가 너무 크다.

모든 종류의 마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 5: 19~21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술수에 대해(20 절) 말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원어에 보면 그 단어는 프할마 케이아(Pharmakeia)인데 이는 마약 사용과 약물, 알약 또는 마 법에 걸린 상태의 황홀을 의미한다. 이는 마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마약이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모든 마귀숭배에

마약이나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의해 마약이 사용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당이나 심령술사들, 그리고 다른 심령술과 연관되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약을 사용하는 자는 망한다.

마약을 복용하는 자들은 그 약효로 인하여 환각상태에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사단에게 그의 삶을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약중독에 빠졌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약중독에 빠진 자들이 귀신들리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마귀의 목표는 언제나 파괴시키는 것이다(막 9:22; 요 10:10).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는 마약 사용자나 다른 희생자들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많은 상식을 초월한 살인사건들의 이유를 말해준다. 사단과 마약, 그리고 파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를 피하는 것은 곧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악한 화학약품에서 멀리 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는 빠져나오기 힘든 습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습관에 자신을 매이게 해서는 안된다(롬 6:16~23). 이는 큰 대가의 지불을 요한다. 남자는 때로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사용하며 여자들은 때로 배출을 하기도 한다.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이나 쇠약, 면역체계의 파괴로 인한 몸의 손상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때로 정신적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마약중독은 때로 정신적 착란과 이성을 잊게 만들어 자살에 이르게 만든다. 이에 덧붙여서 마약사용은 위법이다. 이를 어기는 자들

은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감옥에 긴하게 된다. 그리고 언제나 깊이 빠질 위험이 있으며 때로 과도한 복용으로 공동묘지로 진행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로운 화학약품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6:19). 그리고 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흐려지기 때문에 마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도 안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사람들을 마약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앞에서 우리는 마약은 때로 마귀승배와(역사)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또 다른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노름, 마술, 요가, 은갖 점성술, 길흉을 말하는 것, 신접하는 것, 죽은 영혼들과의 접촉 등이다(신 18:9~14).

술

알콜중독자로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는 “예, 저는 예수님께서 술을 식료품으로, 노름판의 돈을 가구로, 마음에 상처 받은 여인을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여인으로 바꾸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물을 술로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가장 혼하게 마약처럼 남용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술일 것이다. 앞에서도 마약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술은 세상의 현실을 도파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술은 문제들을 잊고 긴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나 술도 다른 마약처럼 도덕을 퇴

폐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파탄에 이르게 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해 성경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래 술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이를 적당히 사용함으로 즐기는 것이었다(시 104:15). 그분은 술을 과용함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잠 31:4,5; 호 4: 11). 또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을 허락하셨으며(딤전 5:23), 죽어 가는 자에게 약으로써의 사용을 허락하셨다(잠 31:6,7).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남용하여 알콜중독자가 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방탕에 빠지는 것에 대해 엄히 경고하셨다(롬 13:13). 하나님께서는 술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전 6:10). 사람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지라도 만일 술에 취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그 고백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 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1).

술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롬 14:21).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달래거나 위로하기 위해 술을 필요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술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해야 한다(엡 5:18).

병인가, 아니면 죄인가

“술(알콜중독)은 병이지 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현대 사람

들의 말을 믿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술취하는 것은 죄이며 술취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전 6:10).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말함으로 그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다. 몇 년 전에 “내셔널 보이스”라는 잡지는 술은 병이지 죄는 아니라는 기만의 글을 실었다.

“술은 의지로 다스려야만 하는 질병에 불과할 뿐이다.
 술은 선전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병에 담아 판매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대리점을 필요로 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범죄를 조장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습관을 조장하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광고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는 질병으로서 그 약이 없는 질병일 뿐이다
 술은 하늘나라에는 금지된 질병일 뿐이다.
 술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어진 질병일 뿐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종처럼 매여서는 안된다(고전 9:26,27). 이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하는 습관이며, 때로 가족이나 개인에 필요한 돈을 허비하게 만든다. 솔로몬은 술을 좋아하는(지나치게)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잠 21:17). 그리고 선지자 요엘도 술에 매인 자는 동녀를 술로 바꾸어 마시게 된다고 말하였다(욜 3:3).

술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간경화, 신장질환, 심장질환, 뇌세포 손상들이 술로 인해 올 수 있는 병이다. 미국에서 알콜중독자들의 평균 수명은 51세로써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매우 짧다.

임신 중에 알콜복용은 태아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 어떤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술은 일할 시간을 빼앗고, 직장에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살하게 하고, 또 살인자들은 그 영향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80%가 범죄할 때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술은 또한 그 취한 자의 모습을 흉하게 만든다. 솔로몬은 잠언 23:29~35에서 술취함에 대해 아주 적절한 묘사를 하였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낼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가장 안전한 방법

사람이 알콜중독에 빠지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술로부터 그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만일 연약한 성도가 당신이나 내가 술마시는 것을 본다면 술마시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 자신 또한 이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콜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좋지 못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롬 14:21). 또한 그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말했다(고전 8:13).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술주정뱅이로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술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멜트로테는 알콜중독자였다. 그는 술이 깰 때 언짢은 기분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 늘 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루는 그의 아이가 죽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이가 누워있는 관 뚜껑을 열고 아이의 신발을 벗겨 전당포에 맡기고는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셨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을 알고는 죽기 위해 저수지를 향해 걸어갔다. 가는 길에 길가에 있던 선교부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

되었다. 그는 더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길거리의 불쌍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그의 남은 삶을 보냈다.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알콜중독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본이 되었다. 그는 알콜중독자는 일평생 술에서 완전히는 해방될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켰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은 생각이다.

또다른 한 알콜중독자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의 삶을 살기로 한 결정의 표로써 침례받기를 원했다. 침례식이 끝난 후 물탱크의 물을 빼보니 탱크바닥에 술병이 놓여 있었다. 이는 침례받은 한 신자가 그의 옛 삶의 한 장을 마감하는 것이었다. 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신자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할 것이다.

(1) 당신에게 있는 모든 술을 내다버려라. 이는 정말 당신이 술에서 해방되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험이다.

(2) 술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3) 모든 술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라. 한 모금이라도 거절하라(잠 1:10).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할 수 있다(잠 18:10). 당신이 이에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는 또 다음의 시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전 10:13).

(4) 실패할 때는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라(요일 1:9). 때로는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실패를 나누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5) 술을 마시도록 유혹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라(롬 13:14).

(6) 가능하다면 당신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상황을 말하고 그의 권위 아래 당신을 두어 그로 당신에게 책임을 묻게 하라. 그로 하여금 술에 대한 당신의 삶을 간접하게 하라(잠 17:17).

술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할 때의 일이다.

27
도 박

“당 신은 이미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얻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몇 안되는 행운아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겨뤄보자.”

이와 유사한 말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도박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는다. 심지어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도 도박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다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수천만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이란 생각이 든다. 집에 돌아와 신문을 보니 복권 한 장으로 1억원을 탄 사람의 기사가 실려 있다. 우리는 “내가 만일 복권을 사서 1억원을 탄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본다. 그 때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아주 예쁜 어린이가 복권을 사달라고 권한다. 어린아이의 청을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마침 1억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던 터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짧은 시일 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부해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일들이 아주 많다. 경마장이 있고 개싸움, 슬롯머신, 홀덤,

카드놀이가 있으며 주택복권, 체육복권 등 수많은 복권이 있다. 그리고 축구경기나 권투, 야구 경기 등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도 있다. 또는 더 고급스런 도박을 하고 싶다면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투자가 다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아주 건설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의 동기나 주식의 성격에 달렸다. 도박에 대한 유혹은 그 당첨비율이나 상금액수에 달려 있다.

1975년도에 미론 데 소우자라는 브라질계 사람은 축구장에서 25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어 20억원의 상금을 뒀다. 그때 당시 그 돈은 복권 사상 세계 최고였다. 그 다음 해에는 뉴저지에 사는 26세의 청년이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에 당첨되어 그의 평생에 매주 150만원씩 받게 되었다. 만일 그가 76세까지 산다면 그는 모두 약 39억원의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복권에 대한 상금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이에 대한 유혹을 더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박은 합당한 것인가? 성경이 “도박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출 20:17). 도박은 하나님의 탐욕의 표현이다. 이는 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곧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내가 부해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대신 기회나 행운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금하고 있는데 도박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15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을 사랑함에서 해방되며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히 13:5). 탐심은 우상숭배로(골 3: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기는 것과 같다. 탐심은 지역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죄인 음행과 우상숭배, 토색, 술취함, 후욕 등과 함께 언급되었다(고전 5:11). 사실 이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한 죄에 속한다(고전 6:10). 성경은 또한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잠 13:11).

성실한 일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지만 도박은 그렇지 않다. 얻기 위해 도박에 참여하는데 사실은 잃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빙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한다(잠 28:22).

도박의 동기는 탐욕이다. 탐욕은 악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 이 경우 하나님의 저주는 물질에 대한 것이다. 성경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한다(렘 17:11). 도박으로 얻은 돈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만족을 주는 대신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라”고 권하고 나서 부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였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니니 곧 사람으로 침률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전 6:9).

로마 군병들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옷을 쥐하기 위해 도박을 한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도박”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요 19:23,24).

잃는 사업

사람들이 도박에서 많은 돈을 얻게 되면(미국의 일부 지역의 합법적인 노름이나 복권 등—역자주) 곧 신문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잃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우리는 1974년도에 이탈리아의 사업가가 모테카이로에 있는 도박장에서 약 15억원을 잃었다거나 같은 해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아랍의 왕이 한번에 약 8억원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은 별로 자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슬롯머신에서 자신들의 돈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도 신문에 크게 실리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큰 슬롯머신이 만원을 내고 당첨될 수 있는 상금은 약 8억이다. 그런데 그 확률은 250억분의 1이다.

도박도 쉽게 습관화될 수 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에 매여 돈을 물쓰듯하는 것은 혼한 일이다. 그들은 마치 어떤 환상에 빠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들은 마치 도박장에 오래 있을수록 많은 돈을 벌고 최소한 잃은 것은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때로 돈을 벌어서 앞으로 잃을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박에 매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비록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에든지 매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도박은 그리스도인이 판여해서는 안된다(고전 6:12).

도박에 매인 사람들이 그 자신이나 가족에 가져오는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은 황폐해가고 음식을 살 돈은 줄어들며 수입은 적으며 빚은 산같이 쌓이고, 하룻밤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갑부가 되는 무익한 공상만 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젖은 것을 만회하고자 저지른 많은 범죄들을 생각해보라. 절도, 횡령, 협박 등 돈에 대한 환상에 젖어 판도라 상자를 뼐질나게 드나들고 있다. 도박은 흔히 사악한 무리들과 연관되어 있다. 신디케이트나 마피아 같은 조직들에서 도박을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옥냄새가 나는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물론 때로 이 시험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이 많은 돈을 얻었을 때 주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이것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낡은 괴변이다.

한번은 신앙심이 깊은 한 여인이 자기 땐에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제안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왔다. 그녀는 목사에게 자기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만일 그가 기도해서 당첨된다면 당첨금의 절반을 교회에다 바치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저는 당신의 종교관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개념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일은 도박으로 얻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깨끗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실 수도 없다. 도박에 대한 시험을 받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전 6:6). 만일 당신이 경건하고 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지

고 있다. 만일 당신이 경건하다면 도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지 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박의 필요성이나 욕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박에 유혹을 받는 자들은 사무엘 존슨의 말을 고려해보라 “금에 대한 욕심이나 무정, 그리고 무자비는 거듭 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부패상이다”

28

산아제한

산 아제한 같은 주제가 거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 포함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산아제한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성도들 중에는 산아제한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 어떤 성도들은 이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다(롬 14:5).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

산아제한에 대한 가장 좋은 논의는 이를 주장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다.

- 하나님은 창세기 1:28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파기된 적이 없다.

반대자들의 답: 이 말씀은 창조 바로 후에 그리고 노아 홍수 바로 후에 주어졌다. 이제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세상에 필요

하지 않다.

- 대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 127:3~5).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 128:3,4).

일반적으로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자라며 서로 까이고 부서져서 모난 면이 적으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도 알고 쉽게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는다. 오난이 바로 산아제한을 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창 38:1~11).

반대자들의 답: 그렇지 않다. 오난의 죄는 당시의 관습대로 그가 그의 형수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었다.

-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고전 7:5).

반대자들의 답: 여기에서 밀하는 것은 임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의 성생활에 관한 것이다.

- 여자들은 임신을 통하여 삶에 만족과 성취감을 느낀다. 이를 통하여 여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 것이다(딤전 2:15).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여인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르는 것이다(딤전 3:15, 5:14; 딸 2:4).

반대자들의 답: 그렇다면 결혼할 기회가 없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여자의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으로서(창 20:18, 29:31; 삼상 1:6).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다. 성경 어디에서도 산아제한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산아제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경말씀은 한 구절도 없다.

산아제한을 찬성하는 자들의 주장

이제 산아제한을 찬성하는 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뭔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짚주림에 의해 죽고 있고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고통당하고 있다. 만일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세계적인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반자자들의 답: 문제는 곡식의 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짓종교인들이다. 풀고루 다 나누어 먹는다면 결코 양식은 부족하지 않다.

- 자녀의 수는 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여러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보다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주

님께도 영광이 된다.

반대자들의 답: 하나님은 작은 가정의 필요뿐만 아니라 큰 가정의 필요도 공급하실 수 있으시다. 마태복음 6:33, 벨립보서 4:19을 보라

-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거공간이 좁고 비싼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녀를 낳아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결혼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친구애를 가지며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자의 건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산아제한을 해야만 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은 이 죄악되고 혐악한 세상에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반대자들의 답: 하나님의 자비는 자손에서 자손에 이른다(시 103:17).

- 논쟁은 지극히 학문적이고 형식적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산아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17~18명, 또는 19명의 가족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대자들의 답: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고려의 대상은 성경은 산아제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갈 5:23). 하지만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답은 결혼한 부부가 이 친반론

자들의 주장을 주님 앞에서 잘 고려해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편이나 찬성하는 편 모두에 신실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너무 독단적이거나 강압적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찬반 모두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정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29 정치

그 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격언을 사용한다.
 “의인들이 잠잠하면 악은 활개칠 수밖에 없다.” 이 말로도 부족
 하면 그들은 믿는 자로써 정치에 참여한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니엘의 예를 듈다.

위에서 언급한 격언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
 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에 성경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요
 셉이나 다니엘은 정치인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
 즉 공무원으로서 봉사한 것이었다. 모세의 경우는 정치단체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였다.

성경의 견해

성경말씀에서 우리는 정치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가? 주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치와는
 반대의 위치에 계셨다. 제자들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
 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본 게 있었는가? 사도 바울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의 자신에 대한 소명과 말씀에 대한 충성은 그를 바리새파 단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가르치셨다(요 18:36). 그분은 그분의 불신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요 7:7).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했다(요일 5:19).

정치는 세상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후 6:17). 이르키메테스는 지구 밖에서 충분한 크기의 지렛대만 구할 수 있다면 지구를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우리도 세상을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얹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딤후 2:4). 모든 신자들은 다 각각 어떤 임무를 맡고 있다. 세상의 다른 일들로 맡은 일들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부패했다. 정치는 타협의 조직이다. 그들의 결정은 옳고 그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되어진다. 정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에 따라 되어진다. 최근에 미시간주 의원은 “정치는 그 자체가 썩었다. 교회는 괜히 혓된 인간들의 일에 관여함으로 교회 본연의 위치를 잊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면 그 거룩성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나나 껌질

세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 중생인 것이다. 정치는 암환자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전진 구호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이다(눅 9:60). 다음의 바나나 껍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해준다.

“어떤 한 사람이 인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기사를 수만장 인쇄해서 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떠나 직장을 향해 가다가 길거리에서 바나나 껍질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다가 넘어지면 다치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는 또 생각해 보았다. 시내에는 또 다른 곳에 바나나 껍질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누가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넘어져 다치지 않겠는가 하며 자기가 그 껍질들을 찾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것을 치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인쇄하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계속 인쇄기를 돌리고 또 기사를 세계 각처로 보내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바나나 껍질을 찾아 쓰레기통에 넣는 일을 포기했다. 청소부 아저씨들에게 바나나 껍질 청소는 맡겼다. 그것이 바로 청소부들의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적용을 찾아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을 맡기셨다.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만일 우리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좀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다(창 15:14).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죠웨온 이에 관해 잘 말했다. “우리는 세상의 구속사업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며, 자신을 다스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봇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는 그들의 높은 소명을 등한히 하고 하찮은 것에 매여있는 자들,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자들,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에 대해 마음 아파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차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빌 3:20).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들이다(벧전 2:11).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 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에(정치) 함께 동참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일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는 정치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기를 내려오면서 거듭 실패하고 있는 정치에 내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이 세상의 상태가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다(딤전 4:1~3; 딤후 3:1~5).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파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무겁고 급박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란 말인

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는 투표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권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전 4:8). 이 땅의 삶은 앞으로 다스릴 때를 위한 훈련기간이다. 윌리암 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겠지만 지금은 고난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님도 아직 다스리시기 위한 권세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의 보좌를 기다리고 계신다”(계 3:21)라고 말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켈리의 말이 옳음을 증명하는 기사를 보았다.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반디케는 문제의 인물이다. 그의 선거 참모는 스 켄달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1984년도에 거짓 홍보물을 사용함으로 주 의회에 의해 거의 쫓겨날뻔 하였다. 감사원은 그에게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의회는 그에게 사과할 것을 결의하였다.”

켈리의 말은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30

자기 집착

거 루을 추구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 승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는 잘못된 것으로서 이는 실망이나 낙심, 그리고 실패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 세상은 사람과 그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인정이나 유명, 용납 등을 바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에서는 인본주의를 가르치며 복음전파에는 힘이 없다. 기독교 출판사들은 자아를 부추기는 책들을 출판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의 책들을 볼 수 있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 “성 공의 원동력—자기 사랑”, “나도 팬찮고 당신도 팬찮다”, “내가 팬찮다고 누가 말하는가?”, “참다운 자신관”,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라”, “자신을 아는 예술”, “당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미래에 대한 열쇠가 된다”, “나의 아름다운 감정”, “당신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30일 작전”,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당신 자신의 삶을 살며 즐기라.”

오직 단 한 권의 책이 한쪽 모퉁이에서 미약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당신 자신을 버리라.”

오늘날의 많은 심리학 상담들도 자신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들은 아동기의 교육과(부모들의 실패를 강조하며) 생각, 동기, 두려움, 고민, 억압(특별히 성에 대해)에 대해 진찰을 받게 한다. 그리고 어떤 핵심도 없는 상담(진찰) 가운데서 그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정신병원인 세상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Ibsen)은 페터진트가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친 사람들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었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전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사는 “그들은 미쳤어요.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을 끌어안고 있으며 꿈속에서도 이를 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은 페터진트가 방문한 병원과 같다. 보기에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모두 자신에 미쳐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나 정치, 전쟁, 예산, 돈 등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정신이나 신경 또는 감정불안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삶 중심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상담술은 오직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신경성 환자는 그 성을 허공에 쌓는 사람이요 정신병자는 그 성으로 이사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그 성을 세놓는 사람이다.”

시편 77편의 불쌍한 사람

성경에서 이기주의와 그 해결책을 다루고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두 군데 있다. 그 첫째 말씀이 77편이다. 블링거는 시편 77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기 집착(1~6절)

그 결과—고통(7~9절)

하나님 집착(10~12절)

그 결과—행복(13~20절)

어떤이는 또 이 네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탄식, 침몰, 찬양, 상승.

시편 전반부에서 아삽은 “내 문제” 또는 “나”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13번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나”, “나의”, “내가”라는 말은 2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자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신에 빠져있다. 나머지 하반부에서 아삽은 그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였다. 자신에 대해서는 오직 세 번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24번이나(명사, 대명사) 언급하였다.

로마서 7장에서의 곤고한 사람

두번째 말씀은 로마서 7:9~25이다. 바울은 40번이나 자신에 대해 말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다. 그는 자신 안에서는 승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 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는 자신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승리를 발견했다. 승리를 위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배가 그 뒷을 배 안에 내리는 것과 같아서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왕도 누군가 자기보다는 더 큰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이 늘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시 61:2). 여기에서 바위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사람으로 주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집중력, 그리고 그 질을 생각할 때 그를 하나님의 불구자로 만들고 만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에 매인 종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매여 있는 노예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관중을 원하며 수많은 상담자와 친구들에게 끝없는

비애를 털어놓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고는 거부한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쇠처럼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는 바로 주께서 에스겔 33:31,32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나 와….” 자기 중심주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사람이 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5단계

먼저 그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후 3:18).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것이다. 수천 번 자신을 쳐다보는 것보다 단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성별된 자신이라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저를 제 자신에게서 구해주소서. 당신 안에서 저를 잊게 하소서. 이제는 더이상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소서”(심프슨).

그는 다음의 진정한 법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면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을 얻게 된다.”

바울 반 골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베토벤의 심

포니 9번이 연주되고 나서 관중은 일어서서 지휘자 도가니니 와 그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도가니니는 감정이 북받쳐 그의 단원들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존경어린 표현으로 ‘다만 베토벤만이 위대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성경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맥奎니의 법칙을 따라야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열 번 보라.”

“자신에게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품에 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옛 찬송도 밀하고 있다.

두번째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해 성경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늘에 합당한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이을 자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이루기 위해 유일하게 창조된 자이다. 그는 하나님께 있어 아주 귀중한 존재이며 이에 대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고후 12:11; 갈 6:3) 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을 위해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세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그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그 마음에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돋는 일에 바빠서 그 자

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자들이다. 성취감은 자기 도취보다는 자기 부인에서 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5).

심리학자인 칼 뮤니저에게 혹시 신경성질환을 앓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저보다 더 심각한 환자를 찾아 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자신에 몰두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왜소한 외모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신 사실에 입각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고전 15:10)라고 말해야 한다.

자기의 삶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평강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 불평하는 것은 죄이며 “나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성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짐작하게 만드는 책이나 세미나, 상담 등은 피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31 거룩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월 리암 룽스태프가 네 구절의 찬송에 거룩한 삶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잘 표현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아주 흔히 찬송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따라 부를 때가 많다. 우리 그 찬송가사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찬송에 우리가 언급한 거룩의 요소들이 어떻게 잘 묘사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하자.

거룩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거룩한 삶은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한다.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탄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룩은 순간 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밴스 해브너는 “거룩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그러나 선동자들의 급성장에 대한 선동에 유혹되지 않고 단순한 믿음에 불을 붙여 안식을 위한 옛길을 찾는 영혼은 복

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께 자주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거룩이 없다. 기도는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킨다. 기도는 종종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해야 한다. 그리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땀을 흘리는 기도여야 한다. 기도는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항상 그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하며 특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이는 그분을 점점 더 의지하며 그분을 더 닮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5:10)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워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성도들과 함께 사귀라

성도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같이 좋은 친구들과의 사귐은 그 상대에게 선한 행실을 낳게 한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섬기는 삶과 성도들을 섬기는 삶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나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바쁘게 일하지 않을 때 시험은 아주 강하다.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의 품행에 대한 시금석은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자 하는 청결한 소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과 일치된 것만을 축복하실 수 있으시다.

세상이 밀려온다. 거룩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조만간 우리는 이에 노닥거리며 우리의 능력을 소진할 것이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래함 스크로지(W. Graham Scroggie)는 “축복을 위해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였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이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주님을 닮게 될 것이다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다(고후 3:18).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주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품행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빛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행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무식하고 못 배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 당신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주께서 통제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우리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 급해도 당황치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즉시 오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에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가도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다. 인도하심이 늦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 문제를 해결한다. 그에 대한 결과는 슬픔일 수밖에 없다(사 50:11).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만 믿고 따르라

경건한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당황치 않고 주님만 의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주여, 때때로 경건을 잊어버리는 이 병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라

찬송 가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성결케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모든 소원을 주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거룩한 삶은 평강과 안정, 그리고 평온의 삶이다. 믿음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정에서 건져준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주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각과 기질을 주께서 주장하시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다(시 139:23, 24).

“내 모든 생각, 내 은밀한 곳, 내면 깊숙이 있는 동기를 살펴 소서”(보롬).

“성령을 따라 주 섬겨 살면
곧 저 천국에서 주님 섬기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를 섬기기에 더욱 합당한 자로 준비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라”(딤전 4:8).

결 론

“거룩하라”는 명령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워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들 가운데

중요한 명령이다. 이 명령은 어떤 제시나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꼭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다. 주님이 주신 다른 명령들처럼 이 명령 또한 주님 자신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다.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다. 거룩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신자들에게는 유익을 가져다준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신자처럼 이는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값,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입을 막는다.

거룩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전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이다.

세상과 육,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갑옷 중 하나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우리가 의의 흥배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적은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동참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도의 법칙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 조건들 중에 몇몇은 고백과 상환, 항복, 성경공부, 기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봄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거룩은 우리의 성생활과 언어생활, 기질, 그리고 의복과 연관이 있다. 사실 거룩과 무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히 12:14). 이는 물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신분적인 거룩(성결)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중생의 결과인 상태적(실제적)인 거룩도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성경 강해 및 주석	성경 강해 및 주석
신자 성경주석-마태복음 윌리암 맥도널드/432면/9,000원	사도행전 강해(상) 존 애덤/320면/4,800원
신자 성경주석-마가복음 윌리암 맥도널드/288면/8,500원	사도행전 강해(하) 존 애덤/416면/12,000원
신자 성경주석-누가복음 윌리암 맥도널드/400면/12,000원	로마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92면/7,000원
신자 성경주석-요한복음 윌리암 맥도널드/416면 11,000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베소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288면/10,000원
신자 성경주석-사도행전 윌리암 맥도널드/368면/9,000원	성령충만한 삶(에베소서 강해) 조성훈/248면/1,000원
신자 성경주석-로마서 윌리암 맥도널드/227면/7,000원	기쁨의 삶(빌립보서 강해) 조성훈/190면/6,500원
신자 성경주석-고린도전후서 윌리암 맥도널드/402면/10,000원	빌레몬서 강해(노망친 노예) R. H. 사이스/96면/3,000원
신자 성경주석-길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윌리암 맥도널드/384면/11,500원	히브리서 강해 윌리암 저지스/160면/4,500원
신자 성경주석-골로새서, 대실로니가전후서 윌리암 맥도널드/304면/9,000원	야고보서 강해 일버트 맥쉐인/113면/3,000원
신자 성경주석-목회서신서, 빌레몬서 윌리암 맥도널드/320면/10,0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여기스트 반링/264면/4,500원
신자 성경주석-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윌리암 맥도널드/445면/15,000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주석 J. 알렌, J. 베이커, D. 웨스트/480면/16,000원
신자 성경주석-요한서신서, 유다서, 오한계시록 윌리암 맥도널드/240면/8,000원	
신자 성경주석-모세오경(창세기~신명기) 윌리암 맥도널드/416면/12,000원	
신자 성경주석-역사서(여호수아~느헤미야) 윌리암 맥도널드/328면/15,000원	
신자 성경주석-시기서(욥기~시편 1~106편) 윌리암 맥도널드/448면/15,000원	
신자 성경주석-시기서(2)(시편 107면~이기) 윌리암 맥도널드/464면/15,000원	
신자 성경주석-선지자(1)(이시야~다니엘) 윌리암 맥도널드/362면/12,000원	
신자 성경주석-선지자(2)(호세아~말리기) 윌리암 맥도널드/352면/10,000원	
창세기 연구(상) 헨리 M. 모리스/432면/15,000원	
창세기 연구(하) 헨리 M. 모리스/96면/12,000원	
사사기 룬기 강해 시무엘 리도우트/460면/3,500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304면/9,000원	
에스터 강해 일버트 맥쉐인/144면/3,500원	
욥기 강해 R. E. 앤더슨/192면/4,500원	
메시야 사편 강해 T. 앤네스트 윌슨/204면/3,500원	
잠언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400면/12,000원	
전도서 강해-현되고 현되니 윌리암 맥도널드/128면/2,800원	
이기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44면/4,500원	
이시야 강해(1~39장) 장영모/296면/10,000원	
일기 쓰운 선지자서 개요 윌리암 맥도널드/240면/5,000원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주석 제프 헨트 앤더슨 편집/336면/5,500원	
빌립보서·골로새서 주석 시드니 앤서니 토마스 벤틀리/416면/8,500원	
데살로니가전후서 주석 애니스트 윌슨·로마스 스미스/272면/5,000원	

잊혀진 명령-거룩하라

발행일: 1997년 9월 15일 1판 1쇄 발행
2006년 7월 25일 1판 6쇄 발행

지은이: 윌리암 맥도널드

옮긴이: 조 성 훈

발행인: 이 치 일(E. W. Ritchie)

발행소: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호.

전 화: (031) 914-2732

팩 스: (031) 917-4520

정 가: 8,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764-2 03230